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초점억양 실현 양상 연구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어국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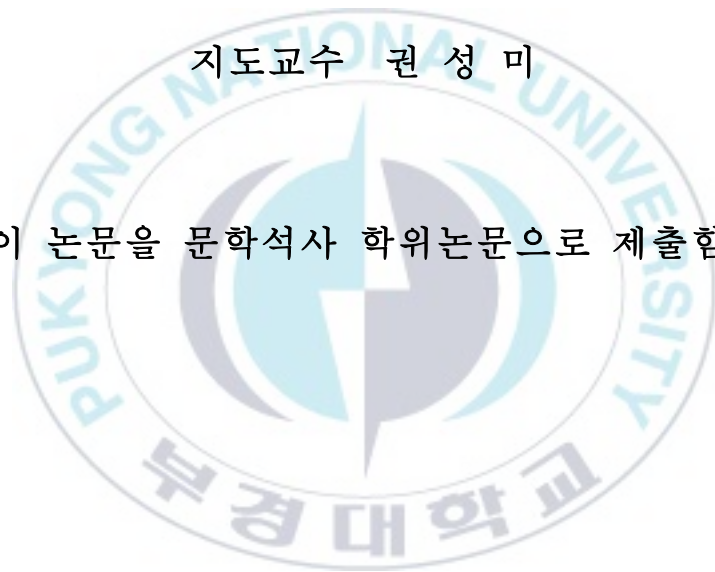
GUO YAKUN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초점억양 실현 양상 연구

지도교수 권 성 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8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어국문학과

GUO YAKUN

GUO YAKUN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8월



위 원 장 언어학박사 김 희 섭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채 영 희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권 성 미 (인)

목 차

그림 차례	iii
표 차례	iv
Abstract	v
I. 서 론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2 선행연구	6
II. 이론적 배경	11
2.1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11
2.1.1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과 유형	11
2.1.2 한국어 초점의 개념	15
2.1.3 한국어 억양의 체계	17
2.1.4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특징	24
2.2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32
2.1.1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과 유형	32
2.2.2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특징	35
III. 연구 방법	39
3.1 조사 대상	39
3.2 언어 자료	41
3.3 실험 도구와 실험 절차	45
3.4 분석 방법	47

IV. 실험 결과 분석	49
4.1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음높이 분석	49
4.2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음운구 해지 현상	54
4.3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길이 분석	60
4.4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 억양의 실현 양상	66
V. 결론	70
참고문헌	72
부록 1	76
부록 2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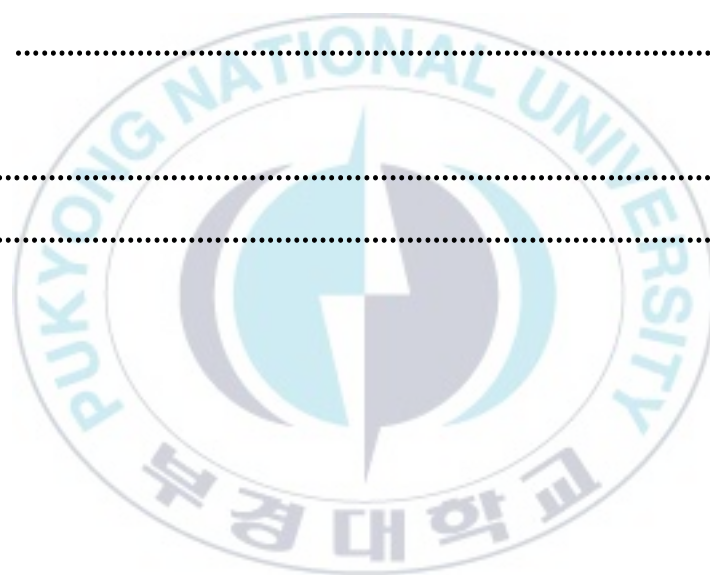


그림 차례

〈그림 1〉 중국어의 초점과 화제, 정보, 악센트의 관계	8
〈그림 2〉 한국어의 억양의 체계 (이호영, 1996)	17
〈그림 3〉 억양의 기본 단위(허용 김선정.2006)	18
〈그림 4〉 한국어의 억양 구조 (JUN, 2000)	20
〈그림 5〉 두 번째 단어에 초점이 있는 발화의 각 구의 F0 최솟값 (Hz)(권성미, 2009)	29
〈그림 6〉 (11a)의 초점 지각 일치 비율 비교 (권민지, 2017)	31
〈그림 7〉 예문(13)의 음높이 평균 비교 곡선	36
〈그림 8〉 두 집단 문장의 음조 최솟값이 초점구에 오는 비율	51
〈그림 9〉 중국인 피험자 대화문 1b'의 무초점 음높이 양상	54
〈그림 10〉 한국인 피험자 대화문 1b'의 음운구 해지 양상	55
〈그림 11〉 두 집단 초점 부분 음운구 해지 현상의 비율	57
〈그림 12〉 중국인 피험자(CF8) 1b'의 초점 길이	59
〈그림 13〉 한국인 피험자(KF1) 1b'의 초점 길이	60
〈그림 14〉 중국인 피험자(CF6) 4b의 초점 길이	61
〈그림 15〉 한국인 피험자(KF2) 4b의 초점 길이	61
〈그림 16〉 중국인 피험자(CF6) 9b'의 초점 길이	62
〈그림 17〉 한국인 피험자(KF2) 9b'의 초점 길이	62
〈그림 18〉 두 집단 초점구 길이 증가의 발생률	62
〈그림 19〉 중국인 학습자(CF2)의 '바나나'의 억양	65
〈그림 20〉 한국인 학습자(KF2)의 '바나나'의 억양	66
〈그림 21〉 중국인 학습자(CF5)의 '바나나'의 억양	67

표 차례

〈표 1〉 ‘을/를’ 중출문에 대한 관점	7
〈표 2〉 이중목적어 구문 개념의 특징	12
〈표 3〉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서정수, 1996)	13
〈표 4〉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이수련, 2009)	13
〈표 5〉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사양위, 2015)	14
〈표 6〉 음절수에 따른 음운구의 음높이 패턴	22
〈표 7〉 두 번째 단어에 초점이 있는 발화의 각 구의 F0 최솟값(Hz) (권성미, 2009)	28
〈표 8〉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33
〈표 9〉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金瑛, 2014)	34
〈표 10〉 한국인과 중국인 피험자 정보	40
〈표 11〉 실험 절차	46
〈표 12〉 한국인 피험자가 문장에서 각 목적어 초점구의 F0 최솟값 (Hz)	50
〈표 13〉 중국인 피험자가 문장에서 각 목적어 초점구의 F0 최고 (Hz)	51
〈표 14〉 한국인 피험자 초점 부분의 음운구 해지 현상	56
〈표 15〉 중국인 피험자 초점 부분의 음운구 해지 현상	57
〈표 16〉 두 집단 초점구의 평균길이(ms)	63
〈표 17〉 중국인 학습자의 목적어 단어 억양 실현율	67

A Study on the Realization of Focus in Korean Double Object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GUO YAKU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Master of Art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focus of the object differs from the speaker of the Korean first language when the Chinese learners issues a double-object phrase. In addition, to help Chinese learners learn comfortably, we would like to find out the aspects of the Korean rhythm system according to the phonetic realization of Korean focusing.

There are too many forms of double-object phrases in Korean. When a Chinese learner ignites, which object is the focus of this conversation and which object should be delivered to the other party is to realize it from ignition to focus. In addition, almost all studies on the phrases of double-object Korean language are dative and syntactic, but there are few rhyming studies of double-object phrases. The double-object phrases is defined as a sentence with two object components. It is necessary for Chinese learners to examine the realization of which object they focus on when they ignite a double-object phrase. And I will also find out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n native speaker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nd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in chapter one, and the preceding research will also be described in the main chapter.

In chapter two is a theoretical background, and we will present the

concept of Korean focus and the system of Korean accents in Korean. Next, before analyzing the type of double-object, we will look at the concept of double-object in Korean. And based on this, we will also look at the case of Chinese double-object phrases and the study on the focal accent of Chinese language.

In chapter three, first, the subjects of the experiment were Korean native speakers and Chinese learners, taking into account the limitations of the text. Next, write an experimental dialogue and record it to the subject.

In chapter four will analyze the recording as chapter three. We will presen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data of the Korean native speaker with the data of the Chinese learner.

Finally, we will comprehensively conclude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experiment with the conclusion part of the main article in chapter five.

I.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이 인접하고 있어서 여러 방면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1992년 8월 한·중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새롭게 발전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문화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하면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추세가 형성되었다. 이중 '2018년 아시아 입학 전형 보고서¹⁾'에서는 중국의 한국 유학생이 전년 동기보다 5.6%를 증가했다. 한국은 높은 학력, 저렴한 유학비용, 높은 입학률 등으로 인해 중국 학생들의 유학 목적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중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온 후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한국어의 습득이다. 많은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 학습한 학생보다 한국어의 실력이 떨어진다. 특히 발음 차이가 제일 크다. 자기 모국어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자기 나라의 방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한국어 선생님의 발음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본고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발음 차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 문장의 억양은 많은 부분을 포함한다. 초점은 그중의 한 부분이었다.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외국인들은 누구나 한국인 모국어 화자처럼 말을 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발음이다. 허용·김선정(2006)에 따르면 발음은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가장 일찍 굳어지는 것으

1) <http://haiwai.hexun.com/2018-08-30/193933049.html>

로, 화자의 유창성에 관한 첫인상을 좌우하며 학습자의 모국어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분야이다. 정명숙(2002)은 외국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학습자들의 오류 중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발음임을 지적하였다. 그중에서도 자음이나 모음의 정확한 음가는 학습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나,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실험대상은 여성 화자를 선정하고 발화에서 여성 화자가 남성 화자보다 더 역동적인 억양은 관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은애 외(2008)에서 한국어 교육기관 세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285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발음 중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억양'으로 드러났다. (김은애 외, 2008, 재인용)

또한 王祥雨(2015)에서 연구자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 설문 조사²⁾ 결과, 97%의 학습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으로 말하고 싶다고 답하였고, 그중 72%의 학습자가 부자연스러운 억양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 하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억양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4%의 학습자가 한국어 억양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여 현재 한국어교육에서 억양 교육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예비 설문 조사와 함께 실시한 사전 인터뷰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한국어 모어 화자처럼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한국어 학습의 목표 중 하나로 두고 있었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처럼 발화하려면 억양에 주의해야 하는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한다. 한국인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청자에게 전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의 음높이를 상승시키거나 음길이를 연장하거나 세기를 강하게 함으로써 다른 부분을 보다 돋보이게 강조하며, 청자는 화자가 말하는 핵심과 돈들림에 보다 많

2) 예비 설문 조사는 2013년 12월 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구글 설문지(Google Forms)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어 억양 학습 동기에 관한 것이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총 31명으로, 중국 내 대학 또는 한국 내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3~6년간 배운 중국인 학습자들이었다.

은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즉, 우리는 말을 할 때 가장 설명하고 싶은 것과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같은 음높이로 말하지 않고 초점을 두어 다른 부분보다 음높이 더 높고, 음길이 더 길고, 세기를 더 강하다고 말한다.

초점은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에게 발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점은 언어 형태적으로는 초점사에 담겨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음성적으로는 발화 중 화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여 발음함으로써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발음은 한국어를 학습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것인데 초점 때문에 한국어를 잘 발화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발화에서 새로움이나 대조, 또는 특별한 정보를 드러내기 위해 특정 단어를 강조하는 것을 초점이라 하며 이 초점을 음성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은 피치악센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Bolinger, 195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하다 보면 억양 배우기 어려워 많은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어 교사들은 한국어가 모국어이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억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에게 억양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인 학습자는 주로 모방 연습, 반복 청취 연습을 통해 자신의 억양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항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억양과 한국인들이 말하는 억양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측정 도구 praat를 사용하여 분석하겠다. 프라트를 이용하여 한국인 피험자 억양의 주파수 구간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호영(1996)은 발화에서 운율(prosody)은 높이(pitch), 크기(loudness), 길이(duration) 등의 세 가지 운율 자질(prosodic feature)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중에 언급한 음의 높이, 크기, 길이, 이런 물리적인 요소는 기본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 세기(intensity), 지속시간(duration)이다. 이러한 운율로 실현된 초점은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주기도 하고 청자도 변별적으로 들을 수 있다. 이처럼 초점에 작용하는 운율은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 초점의 운율저인 실험은 주로 앞에 언급한

듯이 높이, 크기, 길이 등의 측정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원유권(2019)에서 운율은 발화 전체에 나타나는 상대적인 음의 높낮이인 억양(intonation)으로 체계화된다고 밝혔다. 초점 또한 억양을 구성하는 요소로 억양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억양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계 억양, 문장 종결 억양, 정보구조의 억양이나 연결어미 억양 등 연구인데 이중목적어 억양에 관한 연구 없다고 조사하였다. 이중목적어의 경우는 한 문장에서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인데 다중 목적어나 대격 목적어라고 하였다. 간단하게 말하면 목적어의 표지 조사는 '을/를'인데 문장에서 '을/를'이 두 번씩 나타난 문장이다. 이렇게 보면 정보구조의 화제를 확정한 표지 요소 '이/가', '은/는'처럼 이중목적어 구문은 '을/를'로 표지된 두 목적어는 화제 아니라 초점억양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이중목적어는 비교적 복잡한 문장 유형이다. 관련 연구가 여러 방면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중목적어의 개념은 한국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지만 본고는 이중목적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국어 이중목적어는 한상 통사적이나 형태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본고는 이중목적어의 음성적으로 간단하게 서술하겠다. 초점억양의 음성적 실현에 따라 한 문장에서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경우의 초점억양이 어떻게 실현한지를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본고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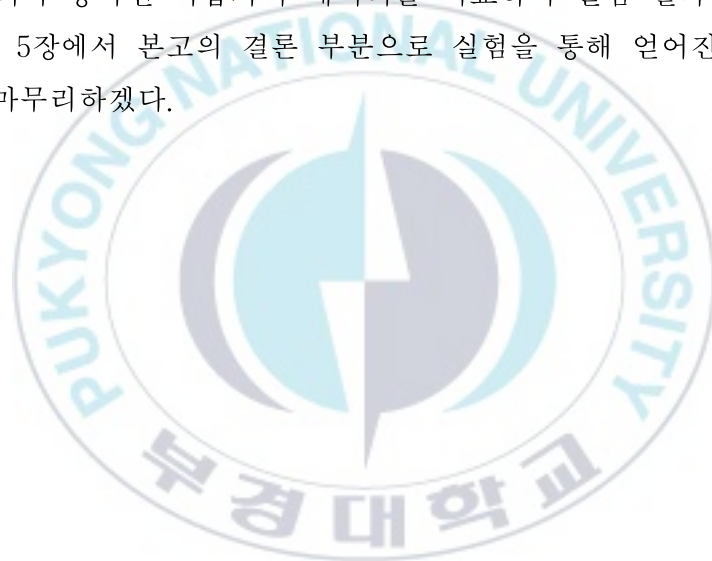
첫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억양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이중목적어 구문의 목적어 초점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셋째, 한국어 초점억양의 음성적 실현에 따른 한국어 운율체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선행연구는 이중목적어, 초점, 억양, 그리고 초점억양에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다. 본문은 1장에서 본연구의 연구 목적과 연구의 필

요성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선행연구도 본장에서 기술하겠다. 2장의 경우는 이론적 배경인데 한국어 초점의 개념과 한국어 억양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다음에 이중목적어의 유형을 분석하기 전에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개념을 총관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이중목적어의 경우와 중국어의 초점억양에 관한 연구도 살펴보겠다. 3장은 실험부분인데 먼저 실험 대상은 본문의 제한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인 모국어화자와 중국인 학습자를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용 대화문을 작성하고 실험대상에게 녹음시켰다. 4장은 3장의 기존대로 녹음을 분석하겠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실험 데이터와 중국인 학습자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실험 결과를 제시하겠다. 끝으로 5장에서 본고의 결론 부분으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하겠다.



1.2 선행연구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한국 한국어의 억양, 한국어 초점, 한국어 말토막 억양, 한국어의 이중목적어 구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 등이 있다.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구문의 구조와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많다. Larson(1998)의 VP 폐각구조(VP: shell structure)와 Aoun&Li(1989)의 소절 구조 (Small Clause) 아니면 다른 연구에서 있는 최소절 구조의 제안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논문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중목적어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영어의 이중목적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영어의 이중목적어 예문은 다음과 같다.

(1) ㄱ. John gave me an apple.

ㄴ. John gave an apple to me.

ㄷ. Carolyn baked the cake for my children.

(Fillmore 1965)

위의 예문 (1)의 ‘ㄱ’을 보듯이 give와 같이 3항 술어 동사에 의해 구성되는 타동사가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의 두 외부논항으로 이루어지는 통사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중에 ‘ㄴ’과 ‘ㄷ’ 예문에서 for/to(여격 구조) 교체된다. 이렇게 보면 이중목적어에 관한 연구는 보통 통사적 연구나 구문에 관한 연구이다.

임홍빈(2007)에서는 이중목적어의 개념을 제시하고 주제의 ‘을/를’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구성 현상을 다루었다. 그런데 하나의 문장에 ‘을/를’ 성분이 둘 이상 나타나는 것은 여러 가지 근원에서 비롯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바 이중목적어 현상이라고 하여 모두 동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중목적어에 대한 가장 중립적인 명칭은 아마도 ‘을/를’ 중출이라는 것을 다루었다. 그리고 ‘을/를’ 중출문에 대한 가설도 총괄하였다. <표 1> 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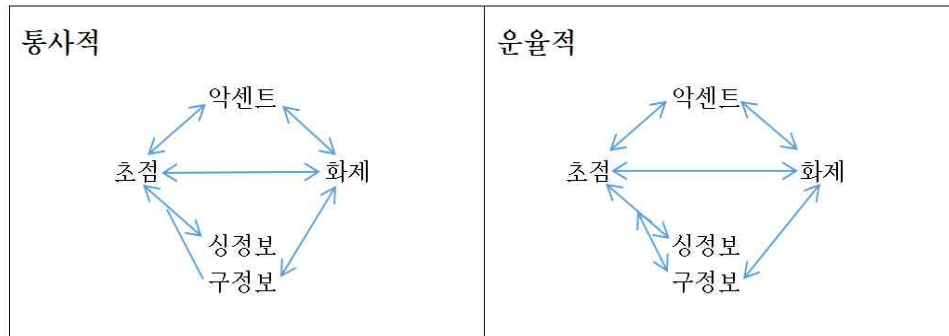
주어문의 첫 ‘이/가’성분을 주제로 보는 견해는 ‘을/를’ 중출 구성의 첫 ‘을/를’성분도 주제로 보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런 초점은 본고의 중심 운율 구조의 초점과 달리 통사적인 초점이다.

〈표 1〉 ‘을/를’ 중출문에 대한 관점

대격설	서정수(1975, 1994, 1996), 서광수(1974, 1977, 2001), Shibatani(1976), 박병수(1981), Y.-S. Kang(1986), 고재설(1987), Choi(1988), J. Yoon(1989), Y.-J Kim(1990), O’Grady(1991), Maling and Kim(1992), 김문오(1997), 우형식(1996, 1997), 연재훈(1997), 최규수(1999), 안명철(2001), Jo(2003, 2004), 이선희(2004), 김미령(2004, 2006), 이종근(2006) 등
초점설	김귀화(1984), Gredts and Youn(1999), J.-Y. Yoon(1989), 한정환(1999), Schutze(2001), 이점훈(2004) 등
양태 조사설	홍재성(1987), 고석주(2004)
주제설	임홍빈(1972, 1974, 1980, 1987), 이광호(1988), 성우용(1994), 허철구(1997), 이홍식(2000) 등

왕효혜(2015)에서 ‘를’에 대한 입장을 몇 개를 정리하지만 그중에 보조사적 쓰임에 더 중심에 두거나 보조사로만 보는 입장(신창순 1979, 유동석 1984, 고석주 2004, 목정수 2003)과 초점 또는 주제화로 보는 입장(김귀화 1998, 김재윤 1992)등이 있어서 본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학자 史德明(2017)에서는 중국어의 초점과 화제의 경우 따른 부류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통사적인 관점과 운율적인 관점으로 초점과 화제, 정보, 악센트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중국어의 초점과 화제, 정보, 악센트의 관계를 〈그림 1〉처럼 제시하여 양방향 화살표는 둘 다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직선은 둘 다 연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림 1〉 중국어의 초점과 화제, 정보, 악센트의 관계

이러한 맥락에서 초점설을 기초로 한 이중목적어 구문(중출된 ‘을/를’ 구문) 중에서 목적어의 초점억양의 음성적 실현 양상을 분석하겠다.

오미라(2008)에서 한국어 초점과 주제의 음성적 실현을 연구하였다. 논문에서 한국어의 초점 실현 양상을 제시하였다. Lee(2000)와 Kim(2003)의 연구를 기초하여 데이터를 구상하고 ‘는’으로 표기된 다양한 구의 운율 특징을 실제 음성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인상에 의거한 기존연구들의 톤 실현 연구와 비교했다. 초점과 주제의 구체적인 음성실험 연구는 음성인식과 음성합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논문에서 Cho, 1990; Hayes and Lahiri, 1991; Inkelas and Leben, 1990; Poser, 1984; Selkirk and Shen, 1990 이런 학자들을 초점 여부는 각 언어에서 억양구 형성을 결정한다고 제시하였다.

이호영(1991)은 음성학적 접근으로 한국어 핵억양의 유형, 특징, 기능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호영(1994)에서는 억양 선택에 제약을 주는 요인을 문장 유형, 어미, 언표내적 행위, 화자의 태도 및 감정 등 네 가지로 설정하여 핵억양의 선택과정을 논의하였다. Jun(1993, 2000)에서는 생성 음운론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한국어 운율 계층 구조를 제시하였고, 억양구 경계성조를 아홉 가지 유형³⁾으로 설정해서 각 유형의 문법 의미와

3) Jun(1993,2000)에서 문말 억양의 종류는 H%, L%, HL%, HLH%, LHL%, HLHL%,

화용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Lee(1990)에서는 이현복(1974)의 말토막⁴⁾에 더하여 ‘말마디’(intonation group) 라는 단위를 설정하여, 말마디 전체에 얹히는 ‘말마디 억양’(tune), 말마디의 끝음절을 제외한 말토막에 얹히는 높낮이 형태인 ‘말토막 억양’(phrasal tone),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말마디 끝억양’(boundary tone)⁵⁾을 구분하고 문장 유형에 따라 단순문(단문)과 복합문(복문)으로 분류하여 그 각각에 올 수 있는 억양 유형을 논하였다(김선철, 2005). 따라서 본고의 연구내용 이중목적어의 억양은 이현복(1974)에서처럼 말토막의 억양 분석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 이중목적어의 발음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한국어 억양의 기능을 유형화한 연구로는 권성미(2016), 이호영(1991)가 있다. 권성미(2016)에서는 문법적 기능, 태도적 기능, 담화 기능, 사회언어학적 기능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어에서는 억양의미의 대부분이 말마디의 끝음절에 얹힌 억양패턴(intonation pattern)에 의해 결정되고, 이호영(1991)에 따르면 이 억양 패턴을 핵억양이라고 한다.⁶⁾ 그리고 억양의 기능도 주로 핵억양에 의해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억양의 기능은 대부분 문말 어미의 억양패턴에 의해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말 억양에 관한 연구에서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기능하는 연구, 감정의 억양에 관한 연구 등 이런 연구가 많았으며 중간언어의 억양이나 말토막 억양에 관한 논문을 부족하게 보인다. 예를 들면 의문문의 억양은 실험을 통해 판정 의문문, 설면 의문문, 수사 의문문, 선택 의문문을 나눌 수 있고 억양 패턴은 ‘H, LH’, ‘ML’, ‘L, ML’, ‘LH, L-HL’이다. 그러나 한 문장에서 통사적으로 보면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 3개로 나누어 세분하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이런 성분이 있고 음운적으로 보면 한 문장은 말토막과 말마디로 설정하였다. 즉 한 문장은 하나이상의 말

LHLH%, LHLHL% 총 9개 있다

4) 2장에서 말토막 참고

5) ‘말마디 끝억양’은 이호영(1994)에서부터 ‘핵억양’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

6) 이호영(1999) 참고

마디로 구성되어 말마디는 하나 이상의 말토크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같이 결합하고 보면 말토크는 문장성분이다. 말토크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말토크 억양이라고 하는데,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핵억양을 제외한 나머지 말토크에는 동일한 말토크 억양이 부과되는 경향이 있다(김기호, 2000: 11). 이에 따라 문장中间的 성분 이중 목적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목적어가 두 개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억양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권성미(2017)에서 억양의 문법적 기능-담화 기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억양의 문법적 기능이 화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장 의미를 전하는 것이라면, 억양의 담화 기능은 화자의 관점은 물론 화자의 의도와 청자의 반응에 대한 고려,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억양의 담화 기능에는 신, 구 정보와 같은 정보 구조를 표시하거나 언표내적 행위에 대한 정보를 담거나, 테스트의 맥락을 표시하고, 대화의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 등이 있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점 여부는 각 언어에서 억양구 형성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한국어든지 중국어든지 다 이런 규칙이 잘 지키고 있다. 한국어에서 초점은 주로 피치와 길이로 실현되며 주제는 형태적으로 '는'보조사로 표현된다. 중국어에서도 주제를 표지한 특정 보조사가 없지만 한국어의 특징처럼 글말에서는 주로 주제화(topicalization)나 끼워넣기 구문(cleft construction) 등을 통해 통사적으로 구현된다. 입말에서는 음성적인 실현에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낸다(Halliday, 1967).⁷⁾ 따라서 본고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초점 실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7) 오미라(2008) 재인용

Ⅱ.이론적 배경

2.1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2.1.1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과 유형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을 분석하려면 먼저 이중목적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한다. 한국어에서는 흔히 ‘철수가 영희를 책을 주었다’, ‘내가 꽃을 세 송이를 폈다.’와 같은 문장을 볼 수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로서 그 문법적 특징의 하나가 바로 대량의 접사와 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S+NP₁ 을+NP₂ 를+V’와 같은 문장 구조가 있다. 이에 중출된 ‘를’을 모두 두 대격 조사라는 주장하고 이런 문장을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보는 논의는 그 전통과 뿌리가 깊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이중목적어 구문을 인정하지 않고 이중목적격문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을/를’이 붙으면 모두 목적어로 인정하지만 서정수(1996)는 목적격 조사 ‘를’이 여격, 처격, 속격 등을 나타내는 다른 격 조사로 대체가 가능할 때는 그 명사구가 목적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목적격 두 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겹목적격 문장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목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겹목적어가 될 수 있는 문장은 없다고 하였다.

오충연(2006: 198)에서 한국어의 이중목적어문을 여격과 교체될 수 있는 것과 두 목적어가 일정한 의미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누었다.

(2) 철수가 영희를 책을 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다.)

(3) 철수가 영희를 손목을 잡았다.

(철수가 영희의 손목을 잡았다.)

오충연(2006:198)

예문 (2)는 여격을 나타내는 조사인 ‘에게’를 목적격을 나타내는 조사인 ‘를’로 대체되어 이중목적어문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문 (3)은 ‘영희’와 ‘손목’이 ‘전체-부분’의 속격관계를 가지고 있는 의미 상관성이 있지만 격 교체 때문에 두 명사구는 통사적인 구조상은 아무 관계도 없게 되는 이중목적어문이다.

본문도 한국어에 이중목적어문이 존재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한 문장에서 조사 ‘을/를’ 붙인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문장은 바로 이중목적어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중목적어구문은 다른 형식의 문장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표 2〉 이중목적어 구문 개념의 특징

- | |
|---|
| I 목적격 조사를 붙이는 명사구는 두 개가 나타나야 한다.
II 이 두 개의 명사구 사이에는 어떠한 통사적인 관계가 없어야 한다. ⁸⁾ |
|---|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개념을 본 후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은 다른 학자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있다.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에 관한 연구는 서정수(1996), 이수련(2009), 사양위(2015) 등 연구가 있다. 서정수(1996)에서는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유형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다섯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8) 사영위(2015) 〈한국어 이중목적어문과 중국어에서의 대응 양상 연구〉 재인용

〈표 3〉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서정수, 1996)

- | |
|-------------------|
| ① 대소 관계 유형 |
| ② 부사어 대치 유형 |
| ③ 수량어 관계 유형 |
| ④ 여격 유형 |
| ⑤ ‘하다’ 및 동족목적어 유형 |

〈표 3〉의 다섯 가지 유형은 구체적으로 분류되었지만 이중의 ‘여격 유형’은 ‘부사어 대치 유형’의 한 부분이라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이수련(2009)의 경우에는 이중목적어의 표지 ‘를’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작용하고 있다. ‘를’이 오는 표현에 의해 ‘같은 영역 전이로 본 목적어 표지’와 ‘다른 영역 전이로 본 목적어 표지’ 두 개로 나누었다. 같은 영역 전이로 본 목적어 표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4〉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이수련, 2009)

- | |
|--------------------------------|
| ① 자유 관계: 하위어가 상위어의 한 종류를 이루는 것 |
| ② 환유 관계: 두 명사구가 전체-부분 관계의 것 |
| ③ 대등 관계: 두 명사구가 비포섭관계에 있는 것 |

이것은 ‘같은 영역 전이로 본 목적어 표지’의 경우인데 ‘다른 영역 전이로 본 목적어 표지’의 경우는 본문이 정의한 이중목적어의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설명하지 않겠다. 사양위(2015)에서는 이중목적어의 개념과 이중목적어의 유형은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중목적어 구문은 보통 격의 교체현상을 통하여 형성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격 교체 양상에 입각하여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면 타당하다고 하였다. 사양위(2015)는 이중목적어의 유형은 네 가지로 나뉘서 다음과 같다.

〈표 5〉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사양위, 2015)

- | |
|-----------------|
| ① 속격/목적격 교체 유형 |
| ② 부사격/목적격 교체 유형 |
| ③ 무표격/목적격 교체 유형 |
| ④ ‘하다류’ |

본고의 이중목적어의 개념과 유형은 사양위(2015)는 정의한 개념을 따르
고자 한다. 사양위(2015)에서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개념은 다른 학자 정의
한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의 부족한 점을 중합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
념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중목적어의 유형이 네 가지이기 때문에 본고의
실험용 대화문은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대조하여 작성하였다.

2.1.2 한국어 초점의 개념

본고에서 먼저 앞서 설명한 대로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억양의 산출양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먼저 한국어 초점의 개념을 보겠다. 운율 체계는 구어 담화에서 중의성을 해결하고, 담화구조 안에서 초점을 받는 단어나 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 등과 같이 청자가 구어 담화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초점은 문장 내 한 요소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거나 다른 요소와 대조되어 강조되면서 운율적으로 돋들리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김성미 2003). 초점은 영역에 따라서 협의의 초점(narrow focus)과 강의의 초점(broad focus)으로 구분된다. 협의의 초점은 문장 내에서 한 단어가 초점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광의의 초점은 구나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⁹⁾

김희성, 이용재, 김기호(2002)에서 초점은 언어학적인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비전제된(unpresupposed) 정보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What did you buy? -I bought a computer.”과 같은 대화문을 통해 초점은 새로운 정보이자 전제되지 않은 정보인 ‘a computer’가 되며, 이렇게 새로운 정보로 초점을 받는 요소는 억양 구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정조의 피치 악센트로 구현된(Pierrhumbert & Hirschiberg, 1990)다고 하였다. 권성미(2009)에서도 초점의 음성적 실현으로 외국인 화자의 한국어 운율 체계 습득 양상을 제시하였다. 운율 체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억양을 포함한 운율적 요소가 담화의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Brown, Currie, and Kenworthy 1980). 일반적으로 운율 및 억양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 구조는 신/구 정보, 대조, 강조 등의 정보 초점(information focus/foci)이라고 밝혔다(Chun 2002). 중국어의 경우도 초점의 유형은 정보 초점, 대조 초점, 화제 초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초점으로 전달되는 신/구 정보도 운율적인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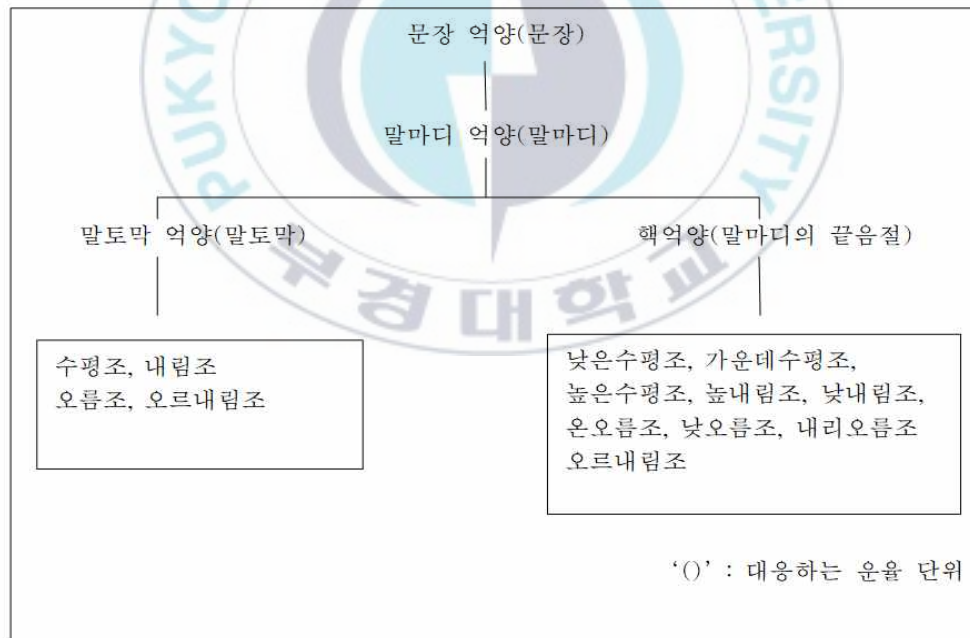
9) 권성미 <한국어 발음 교육론> 재인용

원에 보면 담화에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초점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초점은 음성, 음운론적인 분야에서 연구돼야 하지만 초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의미론, 형태론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Bolinger(1958)는 초점에 대한 정의는 발화에서 어떤 새로움, 대조, 또는 특별한 정보성(informativeness)을 나타내기 위해 ‘초점을 받거나’, ‘강조되고’, 초점어는 피치악센트를 받게 된다고 하였다. 화자가 초점을 주는 것은 문법에 관련한 부분이 아니라 특별한 문맥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 Jackendoff(1972)에서 초점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하는 문장상의 정보이라고 하였다. Jackendoff(1972)에서 언급한 초점의 개념은 앞에 기술된 초점은 ‘신/구 정보’에 관련 개념과 같은 점이 있다. 대화에서 미리 언급되지 않은 신정보는 당연히 화자와 청자 간에 공유되지 않은 비전제의 부분이 되어 초점으로 간주되는 반면 기존에 언급된 부분은 주정보나 전제된 부분이 되어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은 관련분야 후행 연구의 기반이 된다.

2.1.3 한국어 억양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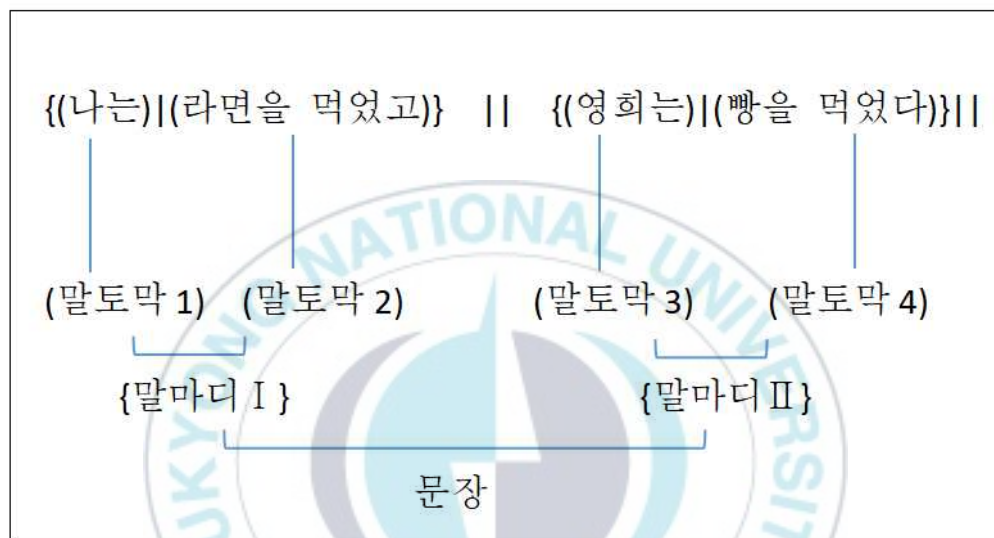
한국어 억양에 관한 연구는 영국 학파 Jun(1993, 2000)의 영향을 받은 음성학적인 관점의 이호영(1996)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¹⁰⁾ 이호영(1996)은 억양을 문장 억양(sentence intonation)과 말마디 억양(tune)으로 나누어, 문장 전체에 얹히는 억양과 패턴 말마디에 얹히는 억양 패턴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중 말마디의 마지막 음절에 얹히는 억양 패턴이 핵억양(nuclear tone)이다. 한국어 핵억양은 ‘낮은수평조, 가운데수평조, 높은수평조, 높내림조, 낮내림조, 온내림조, 낮오름조, 내리오름조, 오르내림조’ 총 9개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호영(1996)은 한국어 억양 체계를 다음과 같이 다루었다.



〈그림 2〉 한국어의 억양의 체계 (이호영, 1996)

10) 박지연 (2009) 석사학위논문 12쪽 재인용

〈그림 2〉를 보면 이호영(1996)에서 문장의 억양은 말마디의 억양으로 설정하였고 말토막 억양과 핵억양(말마디의 끝음절)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중에서 말토막의 억양 패턴은 수평조(level), 내림조(falling), 오름조(rising), 오르내림조(rise-falling)¹¹⁾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3〉 억양의 기본 단위(허용·김선정, 2006)

허용·김선정(2006)에서 한 예문으로 말토막과 말마디의 관계를 분석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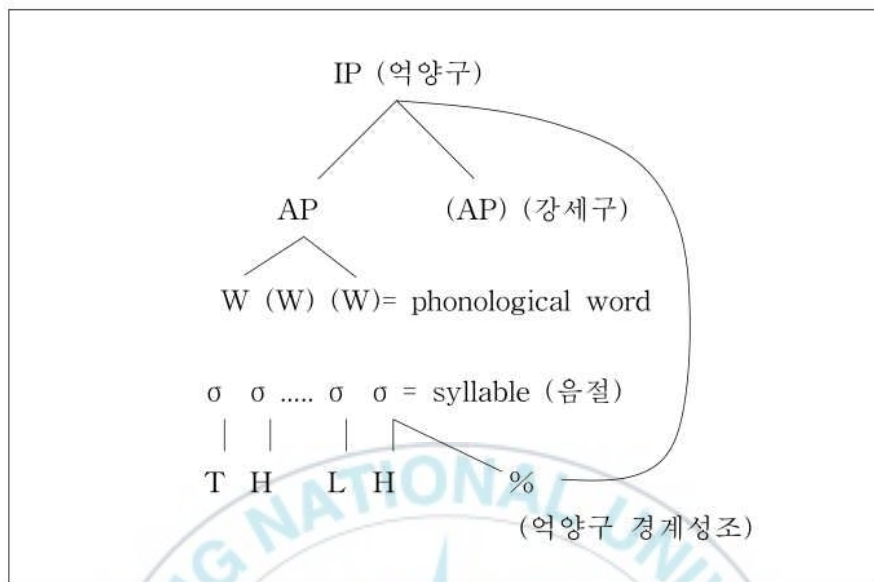
- 11) ① 수평조(Level): 말토막의 모든 음절이 같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주로 사무적인 발화에서 사용되며,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 얹힐 때에는 냉정한, 혹은 강조하는 태도가 전달한다.
- ② 내림조(Falling): 말토막의 마지막 음절이 가장 낮게 발음되고, 나머지 음절들은 같은 높이로 발음되거나 차례로 앞 음절보다 조금씩 낮은 높이로 발음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 주로 얹히며, 말마디 내부의 말토막에 얹히기도 한다.
- ③ 오름조(Rising): 첫 번째 말토막에 얹힌 억양 패턴이며 말토막의 끝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음절(들)은 같은 높이로 발음되고 끝 음절은 나머지 음절(들)보다 더 높게 발음된다. 말토막이 하나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 음절이 오름조로 발음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친근한 발화에서 자주 사용되며,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는 얹히지 않는다.
- ④ 오르내림조(Rise-Falling): 말토막의 두 번째 음절이 첫 음절보다 높게 발음되고 나머지 음절들은 차례로 낮게 발음된다. 이 말토막 억양은 말마디의 마지막 말토막에도 얹히고, 말마디 내부의 말토막에도 얹힌다. 그러나 두 개의 오르내림 조가 연이어 나타나지는 않는다.

억양의 기본 단위도를 만들었다. <그림 3>의 말토막에 얹히는 억양은 핵억양에 비해서 훨씬 제한적인 화자의 감정과 태도, 말의 스타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말마디 전체의 억양 형태와 억양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따로 설정된다(김선철, 2005: 32).

Jun(2000)은 한국어의 억양을 음운적으로 기술하고자 시도하였다. 한국어 억양음운론의 모델인 K-ToBI¹²⁾(Jun, 2000)에서는 Jun(1993, 1996)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울 표준말의 억양 구조를 'LHLH'라는 피치유형을 기준으로 하는 강세구(Accentual Phrase: AP)와 장음화와 휴지로 표시되는 억양구(Intonation Phrase: IP)의 두 운율 단위를 설정했다(김기호, 2000: 15). Jun(2000)은 한국어의 억양 구조를 <그림 4>와 같이 제시했다.



12) Pierrehumbert(1980)의 억양 모델은 (Silverman et al. 1992: Beckman & Ayers 1994: Beckman & Hirschberg 1994)의 수정을 거쳐 운율(prosody)의 음성표기체계인 ToBI(Tone & Break Index)로 발전하게 되어 디지털 음성 자료의 운율자질 분류의 표준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영어 ToBI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화된 소리의 파형(wave form)과 피치곡선(pitch contour)을 포함하여 여러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철자층(orthographic tier)에서는 발화된 문장의 단어를 기술하고 있으며, 성조층(tone tier)에서는 주어진 발화가 어떤 피치악센트와 가장자리 성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운율단위 표시층(break index tier)에서는 주어진 발화가 어떠한 운율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끝으로 기침이나 소음 따위의 정보를 기술하는 기타 정보층(miscellaneous tier)이 있다(김기호, 2000: 4-5). 한국어 억양음운론의 모델인 K-ToBI는 서울 방언의 운율 표기 규약으로, 현재까지 3번의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인 모델이다.



〈그림 4〉 한국어의 억양 구조 (JUN, 2000)

한국어의 초점은 많은 분야에서 실현된다. 문법적 방법, 어휘적 방법, 그리고 운율적 방법에서 실현된다. 본고에서는 주로 초점의 음성적 실현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여기서 운율적으로 초점의 실현 양상을 보겠다. 일반적으로 보면 초점의 운율적인 실현 양상은 주로 음높이(pitch), 길이(duration), 세기(loudness), 그리고 휴지 총 네 가지 방면에서 실현된다. 초점의 운율적 실현에 대해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초점 단어가 그 주위의 단어들에 비해 운율적으로 상대적으로 돋들리게 (relatively prominent) 나타난다는 것이다. 말소리의 상대적인 크기를 돋들림도(prominence)라 하는데 같은 소리라도 더 강한 강세로 더 높거나 길게 발음되면 돋들리게 된다.¹³⁾

음높이는 물리적으로 보면 발화할 때 성대의 진동수의 차이를 의미하며 진동수가 많을수록 음높이가 높고, 반대로 낮은 높이를 기본 주파수(fundamental frequency, F0)라고 한다. 높이는 운율 체계에서 중에서 가

13) 박선우(2014) 제인용

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본 주파수는 물리적인 도구로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측정 도구에서 나타난 연속적으로 이어진 곡선은 기본 주파수 곡선(F0 곡선)이라고 한다. 초점의 운율적인 실현하는 경우는 기본 주파수 중에 가장 높은 점(최고값)을 기록하여 한 문장에서 초점 부분을 표시할 수 있다. 즉, 한 문장에서 음높이의 최고점은 초점이 오는 부분이다. 기본 주파수(F0)의 단위는 Hz가 사용된다.

길이(duration)는 음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의 지속시간이다. 이 지속시간은 발화 속에서 자음, 모음, 그리고 음절의 지속시간의 길이를 말한다. 본고는 이중목적어의 운율적인 실현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목적어의 음절 길이를 측정하고자 한다. 성철재 외(1996)에서는 1분 내에 발화한 음절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초점을 산출하였다. 자유 발화로 녹음하였을 때 음절 길이가 피험자에 따라 달라졌다. 초점의 길이를 측정하는 문장에서 피험자들이 긴장을 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길이가 예상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초점 부분의 음절 길이 측정은 음절 길이의 지속시간보다 음절 길이 증가의 정도나 음절 길이의 증가 유무를 관찰하는 것을 더 정확하다. 따라서 본고는 3장에서 녹음을 분석할 때 두 집단의 음절 길이 측정은 초점 부분의 길이를 기록하는 동시에 초점 부분의 길이 증가 유무도 관찰하고자 한다.

Jun(1993)에 따르면 음운구에서는 'THLH'이 나타나고 'LHLH'를 기본형으로 갖는다. 여기서 T는 음소가 경음이나 격음(ㄲ, ㄸ, ㄺ, ㄻ, ㄼ, ㅍ, ㅌ, ㅋ, ㆁ, ㅎ, ㅅ)이 위치할 때 고조(T=H)로, 나머지 음소에서는 저조(T=L)로 나타나는 것이다. 신지영(2014)은 음운구의 음높이 패턴의 저성조군과 고성조군을 도표의 형식으로 나타냈다. 음운구의 음높이 패턴은 다음의 <표 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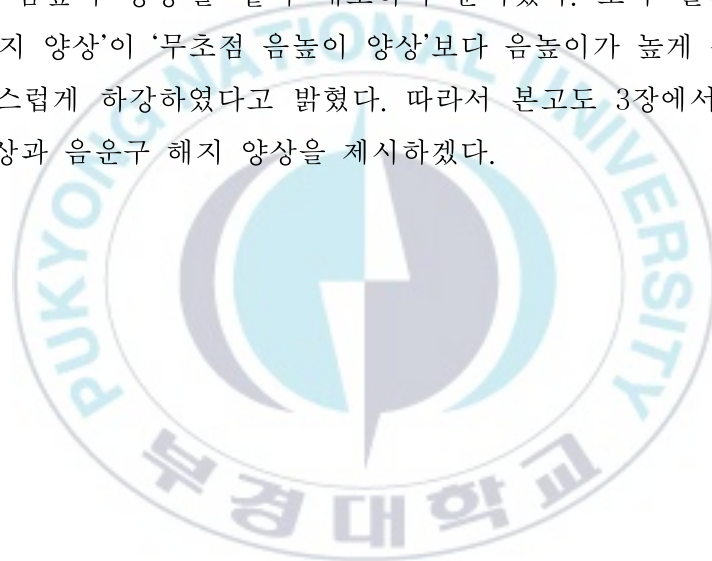
〈표 6〉 음절수에 따른 음운구의 음높이 패턴

	저성조군	고성조군
3음절	L H L H H L L H	H H H L H H L H
4음절	L H L H L H L H	H H L H H H L H
5음절 이상	L H L H L H L H	H H L H H H L H

세기(loudness)는 물리학에서 세기란 파동의 에너지 전파 방향에 수직인 면에서 측정되는 단위 면적당 일률을 의미한다. 음성적인 세기란 발음할 때의 날숨의 힘(amplitude)과 관계가 있으며, 음향학적으로는 진폭과 관련이 있다. 이 진폭은 청각적으로 강도(intensity) 수치를 결정한다.

Lin(2007)은 중국어에서도 강세가 초점을 나타내는 음성 실현의 단서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높이의 표지 기능이 강세보다 강해서 강세를 판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본고에서는 더 다루지 않았다.

이 중의 음운구 해지 현상을 초점의 음높이 실현 패턴 중에 한 가지 형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3장의 부분을 주로의 실현부분이다. 음운구 해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음운구는 Jun(1993)을 따라 ‘강세구나 악센트구’라고 명명하였다. 음운구의 형성은 발화뿐만이 아니라 강조하려는 부분에도 영향도 미칠 수 있다. Jun(2005)에서 ‘한국어의 음운구 해지 양상’과 ‘한국어 무초점 음높이 양상’을 같이 대조하여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초점구는 ‘음운구 해지 양상’이 ‘무초점 음높이 양상’보다 음높이가 높게 상승하여 하강도 자연스럽게 하강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고도 3장에서 무초점 음높이의 양상과 음운구 해지 양상을 제시하겠다.



2.1.4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특징

한국어 발음에 관한 논문은 주로 음운론적인 측면과 음성학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음성학적 연구는 최근 들어 실험음성학, 음향음성학 등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실험음성학에서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구 목적이나 동기는 다르지만 이들은 주로 통사구조에 운율 자질들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또는 같은 의미구조와 통사구조를 가진 문장의 운율 자질에 변화를 주면 그 기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문장 구조에 따른 운율 자질의 변화나 의미 화용론적 정보가 운율 자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루고 있다.¹⁴⁾ 그래서 한국어 통사구조와 운율구조의 관계에 관한 논문은 한국어의 정보구조에서 운율적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논문이 대부분이다.

이하나(2018)에서 한국어의 정보구조에서 형태론적 표지와 운율적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Jun(2005)와 전영철(2009) 등에서는 문장에서 음운적 강세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형태론적인 표지인 ‘-이, -가’와 ‘-은, -는’이 각각 초점과 화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반면, 박철우(1996, 2003, 2015, 2017) 등에서는 ‘-은, -는’은 화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는 하나 ‘-이, -가’는 초점을 표지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가’가 화제를 표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Jun(2005), 전영철(2009)과 일치한다. 이러한 주장이 옳다면 형태론적 표지 ‘-이, -가’와 ‘-은, -는’은 초점과 화제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임홍빈(2007)은 ‘-이, -가’와 ‘-은, -는’을 포함한 보조사 일반을 화제 표지로 보았고 최윤지(2016) 역시 ‘-이, -가’와 ‘-은, -는’을 모두 화제의 표지로 보았다. 이들은 ‘-이/-가’와 ‘-은/-는’으로 초점과 화제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태론적 표지가 초점과 화제를 나타내

14) 신노 토모코(2008)를 참조

는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Jun(2005)은 문장에서 음운적 강세가 주어지는 성분을 초점으로 본다. 다음의 예시를 보자.

- (5) 가. 민호가 방에서 자요.
나. 민호가 방에서 자요.
다. 민호가 방에서 자요.

(5가-다)의 예시에서 각각 짚게 칠한 부분, ‘민호가’, ‘방에서’와 ‘자요’는 음운적 강세로 인해 화제로 작용한다. 예시 (1)은 각각 다음 (2)의 질문에 후행하는 타당한 대답이 된다.

- (6) 가. 누가 방에서 자니?
나. 민호가 어디에서 자니?
다. 민호가 방에서 뭐하니?

(5가-다)에서의 음운적 강세를 받은 요소들은 (6가-다)의 의문문이 요구하는 신정보이다. 문장에서 음운적 강세가 주어진 성분에 초점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통된 의견이다.

임홍빈(2007)은 이중목적어의 초점설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을/를’ 중출된 구문에서 제1 ‘을/를’ 성분을 초점을 본 학자들이 있고 ‘을/를’ 중출 구문의 제1 ‘을/를’ 성분이 초점을 나타낸다면,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인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다. 초점 논의에서는 흔히 초점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의문사-의문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한다.

- (7) a: 철수가 누구를 돈을 주었느냐?
b: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예문을 보면 (7a)는 ‘누구’를 묻는 질문이고, (7b)는 ‘영희를’ 대답이다. 그래서 ‘영희를’은 신정보이고, 신정보를 나타내는 것이 초점이므로, (7b)에서 ‘영희를’이 초점 성분이다. 그러나 초점에 대한 질문-대답 검증은 그렇게 효과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8) a: 철수가 영희를 무엇을 주었느냐?

b: 철수가 영희를 돈을 주었다.

(8b)에서 나타난 초점은 ‘돈을’ 아라는 것인데 제1 ‘을/를’ 목적어 성분이 아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희를’을 사용하여 질문하였는데 대답을 할 때도 ‘영희를’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영희’는 신정보가 아니다. 따라서 초점 부분은 제1 ‘을/를’ 아니고 뒤에 ‘돈을’이라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점이나 화제 표지 기능의 정보 구조 표시 기능에 대해서 검토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을/를’은 초점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역양은 운율체계에서 나타난 양상을 살펴보겠다. 김성아(2003)에서 초점은 문장 내 한 요소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거나 다른 요소와 대조되어 강조되면서 운율적으로 돌돌리게 나타나는 형상을 가리킨다. 그리고 신노 토모코(2008)에서 한국어의 운율 구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총괄하였다.

첫째, 한국어 발화는 하나 이상의 억양구로 이루어지고, 억양구는 하나 이상의 강세구로 이루어지며, 강세구는 하나 이상의 운율적 단어로 이루어진다.

둘째, 억양구는 경계음조(boundary tone: %로 표시)와 구말 음절의 장음화, 그리고 옵션으로 부가되는 휴지로 특징지어진다.

셋째, 강세구는 일정한 음조패턴으로 특징지어진다. 강세구의 기본 음조패턴은 4음절구 기준으로 THLH(구두 자음이 격음, 경음, /ㅅ/, /ㅎ/일 때는 T=H, 그 외의 경우에는 T=L)이다. 단 강세구가 억양구 말에 위치할 때 구말 음조는 상위층인 억양구의 경계음조로 실현된다(하세가와,

2006:569).

이와 같이 한국어 발화의 운율구조는 어느 정도 밝혀져 왔으며, 이러한 음성분석의 성과물은 본고의 실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운율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다. 그리고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운율특징에 관한 문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어 말토막 억양 및 운율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운율 체계는 구어 담화에서 중의성을 해결하고, 담화구조 안에서 초점을 받는 단어나 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과 같은 구어 담화의 이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구어 담화에서 초점 발화의 운율적 특징에 관한 연구는 화자에게 내재한 운율 규칙을 발견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¹⁵⁾

한국어의 경우에 초점을 받은 단어는 악센트구 내의 최고 피치값(pitch peak)을 가지며, 초점이 강세구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초점을 포함한 발화에서 초점 받은 단어는 악센트구의 왼쪽 끝에 놓이게 되며, 다음 IP가 시작될 때까지의 초점 받지 않은 단어들(unfocused words)은 모두 그 AP에 포함시켜 버린다. 다시 말해, 초점 받은 단어부터 AP가 새롭게 시작되며, IP 내에서 초점 단어와 그 다음에 오는 단어 간의 구경계를 해지시키는(dephrasing) 경향이 있다.¹⁶⁾ 특히, 대명사+명사, 목적어+동사, 부사+동사일 때 빈번히 발생한다(Kang, Song, and Kim 2003).

권성미(2009)에서는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 초점 있는 문장을 포함한 한국어 문장을 발화하는 데 나타나는 학습자 운율 체계의 중간 언어적 속성을 조사함으로써, 한국어 억양 습득 양상을 분석하였다. 실험용 대화문은 모두 6개 있고 문장 1~6은 ‘문장 1’과 ‘문장 4’는 문장의 첫 번째 구에, ‘문장 2’와 ‘문장 5’는 두 번째 구에, ‘문장 3’과 ‘문장 6’은 세 번째 구에 초점이 주어지는 문장이라고 설정하고 한국어 모국어 경우에 초점

15) 권성미(2017) 258페이지 재인용

16) 두 음운 단어가 하나의 강세구로 실현될 때 첫 음운 단어의 마지막 음절과 둘째 음운 단어의 첫 음절의 음높이가 완만하게 연속으로 떨어지는 과정에 놓인다(신지영·차재은 2006).

단어가 3음절어일 때와 4음절어일 때 모두 두 번째 음절에 최고점이 실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실험용 대화문의 두 번째 문장은 ‘비빔밥을’에서 초점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별한 것은 <문장 2>의 초점부분은 목적어이고, 본고에도 목적어가 중출된 구문의 초점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 것 때문에 본문에게 큰 도움이 있다.

<문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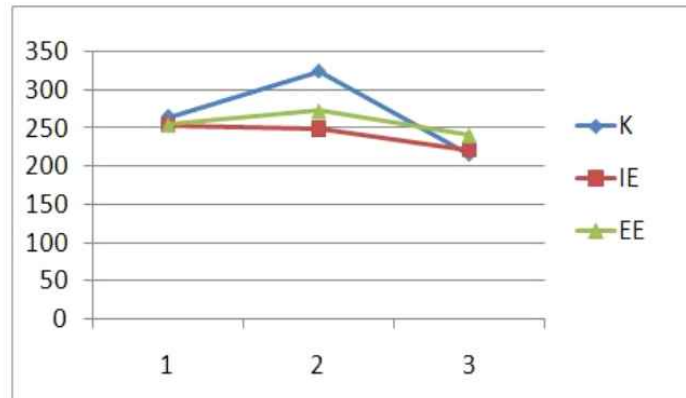
a: 민호가 삼계탕을 먹었어요?

b: 아뇨, 민호가 비빔밥을 먹었어요.

<표 7> 두 번째 단어에 초점이 있는 발화의 각 구의 F0 최솟값(Hz)
(권성미, 2009)

		1	2	3	4
문장2	K (n=4)	264.49 (18.69)	324.01 (14.39)	215.18 (41.1)	*
	IE (n=4)	253.56 (6.9)	248.78 (18.29)	221.16 (9.17)	*
	EE (n=4)	254.58 (15.03)	272.75 (28.42)	240.85 (11.66)	*

※()은 표준편차.



〈그림 5〉 두 번째 단어에 초점이 있는 발화의 각
구의 F0 최솟값(Hz) (권성미, 2009)

〈문장 2〉는 권성미(2009)의 실험용 일기 목록에서의 두 번째 문장이다. 〈문장 2〉를 보면 b의 ‘비빔밥을’은 초점이 오는 부분이고 문장성분도 목적어 성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와 〈표 3〉은 〈문장 2〉의 초점 단어가 발화의 구의 F0 최솟값 그림과 도표이다. 〈그림 5〉에서 K는 한국어 원어민이고 파란색 선이 한국어 원어민 발화한 초점 단어의 F0 최솟값이다. 피험자는 4명인데 3명의 수치가 유의미해서 3명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그림 5〉보듯이, 한국어 원어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집단(IE와 EE)도 목적어 부분에서 F0 최솟값을 나타낸다고 보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음성으로 실현되는 초점의 운율적 특징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주파수는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에 기본주파수의 상승점이 주변부보다 같거나 높게 나타난다. 다음 운율구 형성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음운구해지(dephrasing)이다. 마지막에는 음의 세기도 초점을 지각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김미란·신동현 외(2000)에서 한국어 초점과 관련된 의문문 옥양 패턴을 조사하였다. 문장에서 초점의 실현을 위주로 한국어 의문문의 피치 패턴을 알아봤고 의문문의 피치패턴은 질문의 의미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 논문의 실험은 주로 초점의 측정으로 하는 것이어서 먼저 실험 대화문을 보겠다.

(9) a: 미나는 무를 안 먹나요?

b: 아니요.

(10) a: (놀라서)어! 마늘이 아니라 오이를 안 먹어요?

b: 예, 그렇다니까요.

예문(9)와 (10)은 김미란·신동현 외(2000)에서의 실험용 대화문에서 목적어 성분이 있는 대화이다. 논문의 대화는 의문문 위주로 한 대조문장인데 여기서 목적어 성분이 초점 오는 현상만 보겠다. 문장에서의 분석 그림은 잘 보이지 못하게 때문에 여기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의 두 대화의 초점 부분은 음의 높이는 높게 나타나고 특히 길이는 제일 길게 나타났다.

권민지(2017)에서 한국인, 중국인, 태국인 3개 나라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초점의 지각과 음성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언어권별로 나타나는 초점의 지각 양상과 산출 양상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실험용 대화문에서 두 개의 목적어 있는 문장을 선정하여 분석하겠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11) a: 제임스 씨가 이번 주 토요일에 연극을 보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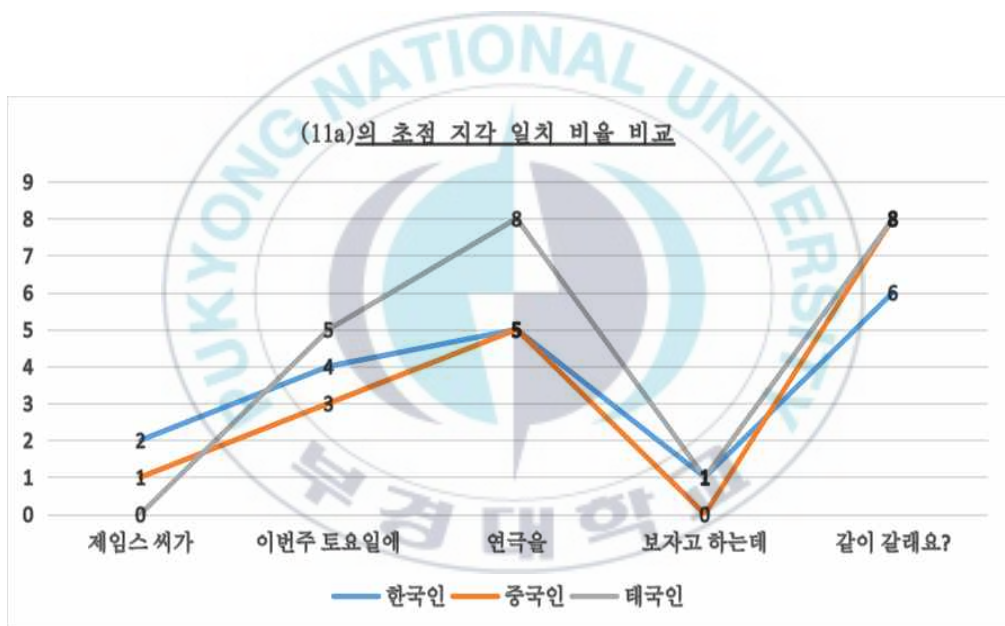
b: 아니요, 저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어요.

(12) a: 이 약 먹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b: 약은 하루에 세 번 드시면 되고, 연고는 자주 바르세요.

예문 (11)과 (12)은 권민지(2017)에서 선정한 예문이다. <그림 6>은 한국, 중국, 태국 3국의 피험자 실험한 (11a) 구문의 초점 지각 일치 비율 비

교도이다. <그림 6>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듯이 문장은 총 다섯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고 ‘연극을’ 부분과 ‘같이 갈래요’ 부분에서 초점 지각 비율이 모든 피험자에서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이 갈래요’ 부분은 이 문장이 의문문 때문에 음높이나 세기 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목적어 부분인 ‘연극을’에서 초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인 피험자에 대한 초점 지각 수치는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 큰 차이가 나타난다. (12b)에서도 ‘세 번’ 부분은 초점이 오고 (11a)와 같은 비율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6> (11a)의 초점 지각 일치 비율 비교 (권민지, 2017)

2.2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2.1.1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과 유형

중국어 이중목적어구문은 馬建忠(1898)에서부터 지금까지 동사 술어문의 중요한 하위 문형 혹은 특수문의 한 분야로 연구되어 왔다. 중국어 이중목적어구문에 관한 연구는 馬建忠(1898)의 『馬氏文通』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비록 그는 이중목적어 즉 雙賓語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중목적어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雙賓語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楊樹達(1920)이다. 중국어 이중목적어구문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술어동사 뒤에 연합, 주술, 동위, 편정 등과 같은 통사 구조 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진 구문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어 이중목적어의 개념도 한국어 이중목적어의 개념 간에 통하는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이중목적어의 두 개 명사구 사이에는 어떠한 통사적인 관계도 없어야 하고 독립적인 두 개의 목적어여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가 운율 체계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억양을 포함한 운율적 요소가 담화의 정보 구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또 두 언어에서도 초점은 모두 운율과 억양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신/구 정보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중목적어의 경우에 초점이 신/구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 간에 어떠한 억양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

- (4) 가. 老師教同學們漢語。--선생님이 학생들에게(를) 중국어를 가르치다.
나. 老師教同學們漢語。--선생님이 학생들에게(를) 중국어를 가르치다.
lǎo shī jiāo tóng xué men hàn yǔ.

위의 예문을 보면 (4가)의 경우는 ‘학생들을’에서 초점을 받고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반면에 (4나)에서는 ‘중국어’를 초점이 오고 선생님은 한국어 아니라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뜻이다. 한 문장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전달뿐만 아니라 신/구 정보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음성적인 초점 실현 양상은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 운율 체계에서 초점 받은 단어는 악센트구 내의 최고 피치값(pitch peak)을 가지며, 초점이 강세구 경계를 결정할 수 있다. 초점을 포함한 발화에서 초점 받은 단어는 악센트구의 왼쪽 끝에 놓이게 되며, 다음 IP가 시작될 때까지의 초점 받지 않은 단어들(unfocused words)은 모두 그 AP에 포함시켜 버린다. 그래서 본고는 주로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 중 목적어의 음성적인 초점역량 양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중목적어 구문을 사용하면 초점역량을 측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초점을 측정하려면 대화문에서 진행해야 한다.

중국어의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과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은 같은 점이 있다. 중국어 이중목적어의 유형은 네 가지가 있다. 이중목적어 구문 연구의 초기 단계에 학자들은 다양한 기준으로 이중목적어 동사를 분류하였다. 먼저 네 가지 유형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표 8〉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 | |
|--------------------------|
| ① 취득류 동사: 給, 送, 贈, 獎 등 |
| ② 수여류 동사: 買, 拿, 收, 罰 등 |
| ③ 서술류 동사: 問, 教, 告訴, 回答 등 |
| ④ 호칭류 동사: 叫, 称, 喊 등 |

金瑛(2014)는 현대중국어 이중목적어구문의 어법 특성을 연구하였다. 그 중에 중국어 이중목적어의 유형도 분명하게 기술하였다. 중국어 이중목적

어의 유형도 동사로 분류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였지만 다양한 점도 있다.
중국어의 이중목적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 9〉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 (金瑛, 2014)

① 수여와 취득

(1) 送你一本書。 (너에게 책 한권을 선물한다.)

(2) 買了他兩斤蘋果。 (그에게서 사과 2근을 샀다.)

② 호칭

(3) 叫他哥哥。 (그를 형님이라 부른다.)

③ 차용

(4) 我借他一本書。 (나는 그에게 사진 한 권을 빌려준다.)

④ 고지/의문

(5) 我想問你一個問題。 (나는 너에게 문제 하나를 묻고 싶다.)

2.2.2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실현 특징

중국어 초점의 경우는 徐烈炯(2005)에서는 중국어 초점은 다양한 수단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표지사, 강세, 어조로 모두 표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화자가 청자에게 자기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정보를 강조할 수 있고,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徐烈炯, 徐丹青(1998)에서 중국어의 초점의 유형은 자연 초점, 대비 초점, 그리고 화제 초점 3개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초점:[+돋들림] [-대비], 대비 초점:[+돋들림] [+대비], 그리고 화제초점: [-돋들림] [+대비]의 3가지 초점 유형이다.

윤기덕(2005)에서는 초점이 중국어에서 억양 요소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 중국어에서 나타나는 초점의 유형을 먼저 살펴본 뒤, 중국어에서 초점과 관련된 억양 현상들은 무엇인지 관찰하였다. 중국 베이징 위주로 중국 북방 지역 중국인을 실험 대상으로 선정하고 예문(13) 등 대화문을 실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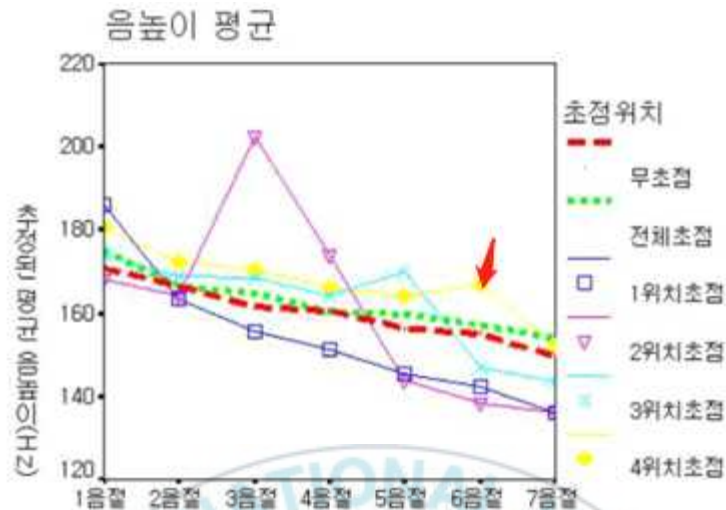
(13) a: 金哥天天擦什么? jīn gē tiān tiān cā shén me?

(김형은 매일 무엇을 닦습니까?)

b: 金哥天天擦車胎. jīn gē tiān tiān cā chē tai.

(김형은 매일 타이어를 닦습니다.)

윤기덕(2005)에서 중국어 성조에 따라 몇 가지 성조를 나눠서 실험하는 동시에 예문의 대답마다 다양한 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하면 다양한 문제에 따라 대답에서의 초점도 다르게 나타난다. 예문(13)은 초점이 목적어에 나타나는 문장이다. 이렇게 하여 예문(13)의 초점 억양 실험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문 (13)의 초점 억양 실현 양상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예문(13)의 음높이 평균 비교 곡선

〈그림 7〉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이 예문(13)의 초점이 나타난 부분이다. 따라서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 목적어의 경우 초점 억양의 음높이의 높게 나타나고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에서도 길이와 세기도 분석하였다. 길이가 길게 실현되는 곳은 초점과 무관하게 각 성분 사이의 경계와 문장 경계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세기곡선은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어 목적어 부분에서 초점이 오는 경우에 음높이, 길이, 세기 등의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목적어가 초점을 받았을 때는 자기 나라의 음성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본고의 한 목적이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초점이 오는 음절은 대부분 다 하강조로 실현된다. 본고와 관련이 있는 실험용 대화문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다음과 같다.

(1)

a. 아니, 동생이 바나나 두 개를 먹었어.

沒有, 弟弟吃了兩個香蕉.

méi yǒu, dì dì chī le liǎng gè xiāng jiāo.

b. 아니, 동생이 바나나 두 개를 먹었어.

沒有, 弟弟吃了兩個香蕉。

méi yǒu, dì dì chī le liǎng gè xiāng jiāo.

(2)

a: 아니, 민호가 비빔밥을 두 그릇을 먹었어?

沒有, 敏浩吃了兩碗拌飯?

méi yǒu, zhé xiù chī le liǎng wǎn ban fan?

b: 아니, 민호가 비빔밥을 두 그릇을 먹었어?

沒有, 哲秀吃了兩碗拌飯?

méi yǒu, zhé xiù chī le liǎng wǎn ban fan?

(3)

a: 아니,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

沒有, 我最喜歡綠茶味冰淇淋.

méi yǒu, wǒ zuì xǐ huān lǜ chá wèi bīng qí lín.

b: 아니,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

沒有, 我最喜歡綠茶味冰淇淋.

méi yǒu, wǒ zuì xǐ huān lǜ chá wèi bīng qí lín.

(4)

a: 아니, 기호가 지혜를 다라를 때렸어.

沒有, 志浩打了志慧的腿.

méi yǒu, zhi hao dǎ le zhi hui de tui.

b: 아니, 기호가 지혜를 다라를 때렸어.

沒有, 哲秀打了志慧的腿.

méi yǒu, zhi hao dǎ le zhi hui de tui.

(5)

a: 아니, 기호가 지혜한테 선물을 줬어.

沒有，志浩給了志慧礼物。

méi yǒu, zhi hao géi le zhi hui lǐ wù?

b: 아니, 기호가 지혜한테 선물을 줬어.

沒有，志浩給了志慧礼物？

méi yǒu, zhi hao géi le zhi hui lǐ wù?



Ⅲ. 연구 방법

3.1 조사 대상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를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가 이중목적어구문에서 중출 목적어 두 개의 초점이 어디에 두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인 모어 화자와 같이 대조하여 어떤 운율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초점을 표지하는 요소로는 피치 최고점의 위치, 강세구 경계해지가 있다. 같은 억양구 내에서 초점 단어 이후에 오는 초점을 받지 않는 단어들을 모두 그 강세구에 포함시켜 버린다. 결국 초점이 실린 발화는 초점이 음조 최고점의 위치와 강세구 경계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 선형연구를 살펴보면 억양에 관한연구, 문말 억양에 관한 연구 그리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임은 관한 연구 등은 이런 연구가 너무 많다고 발견하였다. 그러나 문장내의 말마디의 억양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특히 이중목적어의 억양을 연구하는 것 하나도 없다. 본고도 한국어 서울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가 대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와 같이 대조하여 초점억양에 관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거주한 2년 이상 중국인 학습자가 대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비교를 통하여 이중목적어 구문의 중출된 목적어가 어느 것 초점을 받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억양의 차이도 구하겠다. 또 이런 차이를 측정할 때 대화에서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운율 체계는 구어 담화에서 중의성을 해결하고, 담화구조 안에서 초점을 받는 단어나 구가 무엇인지 명시하는 것 등과 같은 청자가 구어 담화를 인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고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억양을 참조하고 서울에서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가 이중목적어 구문은 말할

때 나타난 음성적인 초점억양의 양상을 대조하고자 한다. 서울에서 한국어를 습득한 중국인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한국어의 방언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공부한 학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방언이 억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학습자만 선정하였다.

3.1.1 실험대상

서울 출신의 20~30대 한국인 여성 화자 4명, 서울 지역 중국인 학습자 여자 10명씩으로 선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 피험자들은 TOPIK 고급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생활한지 2년 이상이 된 20~30대 학습자들이다. 서울 지역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경우는 출생 후에 서울에서 거주하고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없는 한국어 모국어 화자이다. 여성 화자만 선정한 원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발화에서 여성 화자의 억양이 남성 화자의 억양보다 더 역동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여성 화자를 피험자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 말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표준어를 정하였다.

〈표 10〉 한국인과 중국인 피험자 정보

피험자	인원	평균연령	평균거주기간	TOPIK등급
한국인	4명	26.7세 (25-31세)	*	*
중국인	10명	25.2세 (24-26세)	4.4년 (2-5년)	고급

3.2 언어 자료

실험에 활용한 자료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화문을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실험 대화문은 부사격/목적격 교체 현상과 속격/목적격 교체 현상 등 이중목적어의 유형에 따라 작성하였다. 대화문 1~5는 이중목적어구문의 조사 '을/를'이 중출된 문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은 일상 대화에서 구사하기에 어색한 점에 있기 때문에 대화문 6~9는 조사 '을/를'을 뺀 후 작성된 문장이다. 이렇게 하면 피험자가 '을/를'에 따라 초점 억양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다른 변인을 피하기 위해 조사 '을/를' 앞의 명사의 억양도 'L'로 시작하는 것이고 최대한 받침을 없는 명사를 찾아 대화를 구성하였다. 대화문은 다음과 같다.

1.

a: 동생이 머루 두 개를 먹었어?

b: 아니, 동생이 바나나 두 개를 먹었어.

a': 동생이 바나나 세 개를 먹었어?

b': 아니, 동생이 바나나 두 개를 먹었어.

2.

(민호가 비빔밥을 몇 그릇을 먹는지 궁금한 상황.)

a: 민호가 비빔밥 두 그릇을 먹었어?

b: 아니, 비빔밥 한 그릇을 먹었어.

(비빔밥을 한 그릇을 먹거나 볶음밥을 한 그릇을 먹거나 궁금한 상황.)

a': 민호가 볶음밥을 한 그릇 먹었어?

b': 아니, 비빔밥을 한 그릇 먹었어.

3.

a: 녹차 맛 과자를 좋아하나 봐?

b: 아니, 녹차 맛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

a':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b': 아니, 녹차 맛을 아이스크림을 제일 좋아해.

4.

(기호가 누구의 다리를 때렸는지 궁금한 상황.)

a: 기호가 민호의 다리를 때렸어?

b: 아니, 기호가 지혜를 다리를 때렸어.

(기호가 지혜를 때렸는데 어디에 때렸는지 궁금한 상황.)

a': 기호가 지혜의 머리를 때렸어?

b': 아니, 기호가 지혜의 다리를 때렸어.

5.

(기호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지 궁금해서 민호 아닌 지혜에게 주는 상황.)

a: 기호가 민호한테 선물을 줬어?

b: 아니, 기호가 지혜한테 선물을 줬어.

(기호가 지혜에게 무슨 선물 줬는지를 궁금한 상황.)

a': 기호가 지혜한테 책을 줬어?

b': 아니, 기호가 지혜한테 선물을 줬어.

6.

a: 동생이 머루 두 개 먹었어?

b: 아니, 동생이 바나나 두 개 먹었어.

a': 동생이 바나나 세 개 먹었어?

b': 아니, 동생이 바나나 두 개 먹었어.

7.

(민호가 비빔밥을 몇 그릇을 먹는지 궁금한 상황.)

a: 민호가 비빔밥 두 그릇 먹었어?

b: 아니, 비빔밥 한 그릇 먹었어.

(비빔밥을 한 그릇을 먹거나 볶음밥을 한 그릇을 먹거나 궁금한 상황.)

a': 민호가 볶음밥 한 그릇 먹었어?

b': 아니, 비빔밥 한 그릇 먹었어.

8.

a: 녹차 맛 과자를 좋아하나 봐?

b: 아니, 녹차 맛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

a':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b': 아니, 녹차 맛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해.

9.

(기호가 누구의 다리를 때렸는지 궁금한 상황.)

a: 기호가 민호 다리 때렸어?

b: 아니, 기호가 지혜 다리 때렸어.

(기호가 지혜를 때렸는데 어디에 때렸는지 궁금한 상황.)

a': 기호가 지혜 머리 때렸어?

b': 아니, 기호가 지혜 다리 때렸어.



3.3 실험 도구와 실험 절차

서울 출신의 모국어 피험자는 앞의 실험용 대화문을 읽고 녹음하여 음성을 분석하였다. 서울에서 한국어를 학습한 중국인 학습자도 예문을 읽으면서 녹음하여 서울 모국어 화자의 녹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녹음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피험자들은 녹음을 하기 전에 대화문에 익숙해지도록 대화문이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한 후 녹음하였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파악한 후에 피험자들은 대화문을 먼저 몇 번 연습한 후 녹음하였다. 초점 억양은 대화의 답에 따라 초점이 오는 곳이 달라서 음높이, 강도, 길이, 휴지의 정확률을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녹음은 조용한 실내에서 핸드폰의 '음성 메모' 앱으로 진행하였다. 녹음한 음성 파일은 노트북에 전송하고 MP3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9개의 대화문은 각 대화문에 목적어가 2개 있어서 어떤 환경에서 어느 목적어가 초점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화문마다 두 문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대화문은 2번씩 녹음하였다.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경우는 $144(4 \times 9 \times 2 \times 2)$ 개(144개(한국인 4명 $\times$ 대화문 9개 $\times$ 목적어 2개 $\times$ 반복 2번)) 대화문이 있으며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는 $360(10 \times 9 \times 2 \times 2)$ 개 대화문이 필요하다. 준비된 음성 파일은 음성분석 프로그램 Praat¹⁷⁾로 문장 내 초점이 오는 목적어의 파형이나 목적어의 음높이, 강도, 길이, 휴지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7) Praat는 네덜란드 Amsterdam대학의 Paul Boersma가 개발한 음성 분석 프로그램이다. Praat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다운 받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컴퓨터용 음성분석 프로그램이다. 사용자가 직접 녹음된 음성을 음향 신호를 출력하여 편집, 분석할 수 있는 음성 분석 도구이다.

〈표 11〉 실험 절차

실험 대화문 작성 → 피험자 모집 → 대화문 녹음 →
실험 녹음 발췌 → 실험 결과 분석



3.4 분석 방법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억양의 음성적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녹음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주로 2장에서 기술했던 것처럼 초점이 오는 목적어 부분의 음높이, 해지, 길이, 그리고 억양에 관한 분야에서 분석하였다. 이 중에 초점이 오는 목적어의 음높이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초점구 최곳값의 실현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해지의 경우는 앞에 2장 <그림 4>에서 언급했듯이 ‘강세구의 해지’/ ‘음운구 해지’의 양상으로 초점을 받은 목적어의 해지 현상을 분석한다. 길이는 음높이의 부차적인 운율 단위로서 초점이 오는 음절의 지속시간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목적어 초점 억양은 <표 6>에 따라 초점구 음절의 억양 기준을 하여 각 초점구의 억양을 분석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 각 초점구의 음절수에 따른 강세구 경계 성조 억양 양상이다.

a. 바나나 → L H H

두 개 → L

b. 비빔밥 → L L H

한 그릇 → H L

c. 아이스크림 → L H L H

녹차 맛 → L H

d. 지혜 → L H

다리 → L

e. 지혜 → L H

선물 → H L



IV. 실험 결과 분석

3.2장의 대화문 9개는 대화문 1~4와 대화문 6~9로 나눌 수 있다. 두 대화문의 차이는 조사 ‘을/를’의 유무이다. 대화문 6~9는 대화문 1~4에서 ‘을/를’ 뺀 후 작성한 대화문이었다. 이를 통해 ‘을/를’이 있는 이중목적어 구문과 ‘을/를’이 없는 구문 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 이 두 부분을 같이 대조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4.1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음높이 분석

먼저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가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음높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화문에서 피치의 최고점이 오는 부분이 초점 부분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중국인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의 피치 최고점이 초점 부분에 오는 빈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인 모국어 화자가 대화문을 읽었을 때 음높이의 최고점은 <표 12>와 같다. 그 다음은 중국인 피험자가 대화문을 읽었을 때 음높이의 최고점은 <표 13>이다.

〈표 12〉 한국인 피험자가 문장에서 각 목적어 초점구의 F0 최솟값 (Hz)

피험자 문장	KF1		KF2		KF3		KF4	
1	285.11	295.48	306.56	296.51	293.78	264.22	302.12	249.26
2	351.62	307.97	337.56	292.70	325.31	352.08	263.82	266.42
3	287.82	294.05	324.15	307.36	286.46	370.74	303.34	319.16
4	287.90	290.08	344.75	360.63	291.58	311.77	271.36	264.07
5	269.70	340.82	296.19	339.00	316.17	399.42	206.28	287.67
6	280.44	293.77	204.70	305.00	338.02	230.59	*	244.72
7	321.65	278.89	355.55	280.10	333.58	309.28	315.85	305.49
8	305.33	282.89	#	320.10	278.75	312.39	277.91	266.04
9	288.47	257.40	302.46	308.16	309.27	310.76	301.32	25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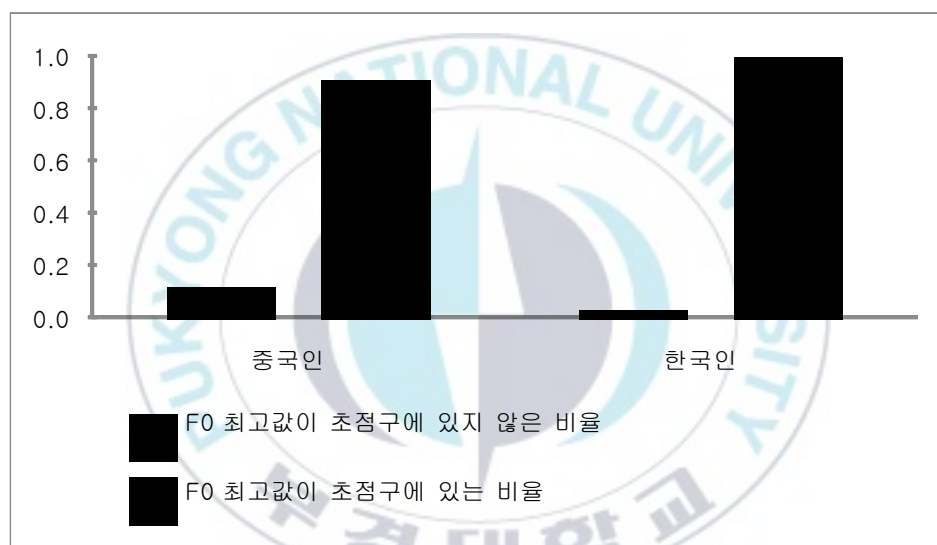
(‘#’는 녹음 수집 못한 것이다)

〈표 13〉 중국인 피험자가 문장에서 각 목적어 초점구의 F0 최솟값 (Hz)

	1	2	3	4	5	6	7	8	9
CF1	296.10	328.45	366.65	308.99	295.93	305.22	316.43	333.36	300.44
	310.30	320.01	289.82	292.34	319.22	330.40	329.14	295.19	317.46
CF2	363.37	396.40	*	327.67	360.79	385.74	392.28	346.99	381.32
	303.82	*	305.77	287.62	364.45	*	399.09	349.30	*
CF3	333.37	391.51	376.50	358.41	361.57	354.07	377.82	387.53	374.20
	296.96	389.56	398.61	330.52	392.07	260.27	354.22	371.54	301.14
CF4	264.52	286.27	235.60	*	229.67	251.87	277.79	*	249.71
	284.80	240.09	239.61	229.71	280.82	291.13	243.98	259.10	*
CF5	222.90	227.84	245.09	233.12	229.05	215.14	227.44	*	217.60
	*	271.74	236.63	235.19	218.04	211.79	*	225.92	208.23
CF6	377.07	398.48	344.48	393.98	379.54	366.75	398.00	395.63	396.00
	386.25	377.90	353.12	382.82	395.47	366.05	374.44	392.51	374.40
CF7	277.91	321.72	304.68	289.73	293.07	298.11	293.32	316.13	282.12
	*	*	*	*	306.63	*	*	258.26	*
CF8	367.28	369.30	314.59	292.84	262.19	240.23	347.89	278.36	267.26
	315.89	*	313.67	280.33	330.99	*	275.65	280.36	236.63
CF9	334.03	354.54	291.93	312.83	325.26	336.24	339.04	231.15	268.88
	302.67	321.07	277.73	290.47	353.85	361.82	284.78	258.33	303.10
CF10	353.85	359.96	366.14	313.28	325.89	377.78	331.24	337.41	311.72
	351.62	331.59	355.58	326.50	370.90	324.49	344.85	340.25	357.71

〈표 12〉, 〈표 13〉은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는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각 목적어가 초점을 받을 때, 이 초점구의 피치 최고점을 표시하는 도표이다. 표에서 ‘*’가 있는 칸은 그 문장에서 초점을 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 문장의 최솟값 부분이 아닌 것을 표시한 것이다. 이런 데이터를 보

듯이 한국인 피험자가 거의 초점을 받아야 할 부분에서 최곳값을 받았다.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는 해당 목적어에서 초점이 와야 할 부분이지만 최곳값이 아닌 데이터가 훨씬 많다. <그림 8>을 보듯이 중국인 피험자들은 해당 목적어 초점구가 최곳값이 오는 비율은 89.5%이며, 한국인 피험자의 경우는 98.6%이다. 다시 말해, 초점구에서 최곳값이 받지 않는 비율은 중국인 피험자는 10.5%이고 한국인 피험자는 1.4%이다.



〈그림 8〉 두 집단 문장의 음조 최곳값이 초점구에 오는 비율

그리고 중국인 피험자 CF7을 제외하고 모두 1~4와 6~9에서는 초점구의 최곳값은 ‘을/를’의 유무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초점구의 최곳값은 상대적으로 ‘을/를’이 있는 경우 초점구에 온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표 13>에서 배경 색깔 짙은 1~4 문장과 5~6 문장을 보면(피험자 CF7제외) 초점 부분에서 최곳값이 나타나지 않는 문장은 5개와 7개¹⁸⁾이기 때문이다.

18) <표 12>와 <표 13>에서 최소선 ‘-’ 있는 데이터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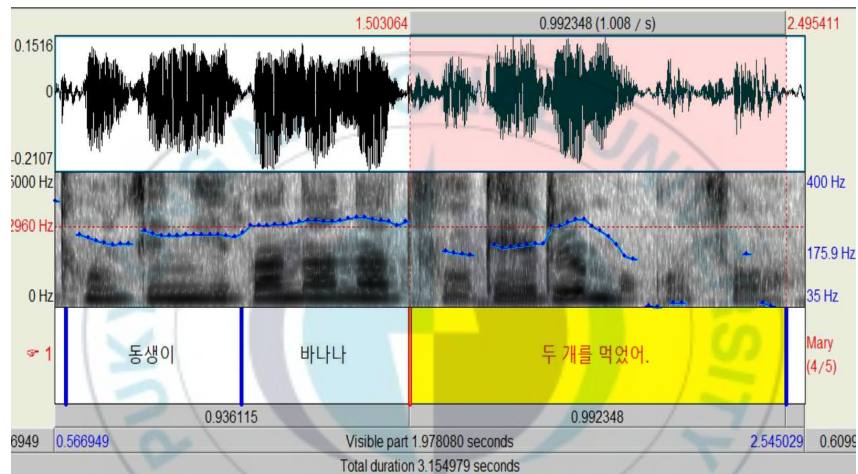
또한 한국인 피험자들도 1~4 문장에서 ‘을/를’이 없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며 5~6문장에서는 한 번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음높이 최솟값은 해당 목적어 초점구에서 나타나는 비율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문장에서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한 문장을 자연스럽게 발음하는 것을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중국인 피험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피험자도 ‘을/를’이 있는 문장이 ‘을/를’이 없는 문장보다 최솟값이 오는 부분의 정확률이 더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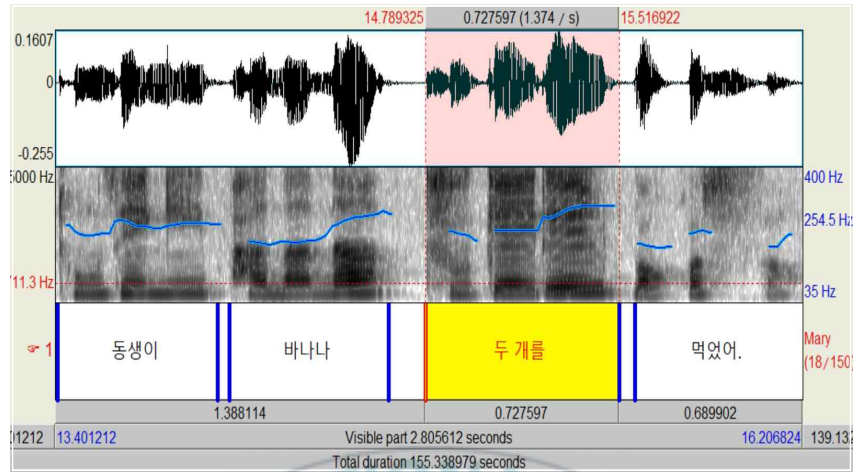


4.2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음운구 해지 현상

초점의 음운구 해지 현상은 초점의 음성적 실현에서 음높이의 한 가지 실현 방법이다. Jun(2005)에 따르면, 한국어 문장에서 초점을 받은 단어는 일반적인 피치 상승보다 더 높은 정도의 새로운 악센트구를 형성한다. 다음은 한국인 피험자의 무초점 음높이 양상과 초점 음운구 해지 양상이다.



〈그림 9〉 중국인 피험자 대화문 1b'의 무초점 음높이 양상



〈그림 10〉 한국인 피험자 대화문 1b'의 음운구 해지 양상

〈그림 9〉은 대화문 1(b'의) 무초점 음높이 양상이고 〈그림 10〉은 대화문 1(b')의 음운구 해지 양상이다. 그림의 제목과 같이 〈그림 9〉은 초점을 따로 두지 않는 전체 초점 문장이다. 〈그림 10〉은 '두 개를' 부분에 초점이 오도록 발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림 10〉이 〈그림 9〉보다 '두 개를' 부분의 음높이가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가 대화문을 발화할 때 초점 부분 음운구 해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14〉 한국인 피험자 초점 부분의 음운구 해지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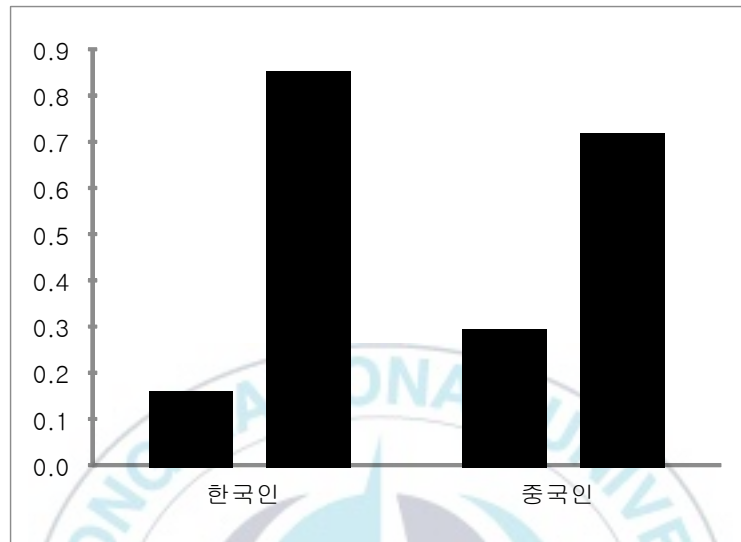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KF1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KF2	O	X	O	O	O	O	X	#	O
	X	O	O	O	X	X	O	X	O
KF3	O	X	O	O	O	O	O	O	O
	O	O	O	O	O	X	O	O	O
KF4	O	X	O	O	O	X	O	O	O
	O	X	O	O	O	O	O	O	O



〈표 15〉 중국인 피험자 초점 부분의 음운구 해지 현상

	1	2	3	4	5	6	7	8	9
CF1	O	X	O	X	O	O	O	O	X
	X	X	O	O	O	O	O	O	X
CF2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CF3	O	X	O	O	O	O	X	O	O
	O	O	O	X	O	X	O	O	X
CF4	O	O	O	X	O	O	X	X	X
	X	O	O	X	O	X	O	O	X
CF5	O	X	O	O	O	O	X	X	O
	X	O	O	O	O	X	X	O	O
CF6	O	O	O	O	O	O	X	O	O
	X	O	O	O	O	X	O	O	O
CF7	O	X	O	O	O	O	O	O	O
	X	O	O	O	O	X	O	O	O
CF8	O	X	O	O	O	O	X	O	O
	X	X	O	O	O	X	O	O	O
CF9	O	O	O	O	O	O	X	O	O
	X	X	X	X	O	X	X	O	X
CF10	O	X	X	O	O	O	O	X	O
	X	X	O	O	X	X	O	O	X

〈표 14〉와 〈표 15〉은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가 대화문을 발화할 때 초점 목적어 부분의 음운구 해지 현상을 나타낸 도표이다. 초점 목적어 부분에서 음운구 해지 현상을 나타내면 ‘O’로, 나타나지 않으면 ‘X’로 표시하였다. 한국인 피험자는 목적어 초점 부분에서 모두 음운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14〉에 따르면 한국인 피험자가 발화한 문장에서 음운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두 11번이다.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는 음운구 해지 현상이 52개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두 표를 종합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두 집단 초점 부분 음운구 해지 현상의 비율

〈그림 11〉은 앞에 〈표 14〉와 〈표 15〉을 종합하여 나타난 해당 목적어 초점 부분에서 음운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는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음운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비율이 한국인 피험자의 경우에는 15.4%,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에는 28.8%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음운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는 비율은 한국인 피험자가 86.4%, 중국인 피험자는 71.2%이다. 음운구 해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비율의 경우, 중국인 피험자의 비율이 한국인 피험자의 비율의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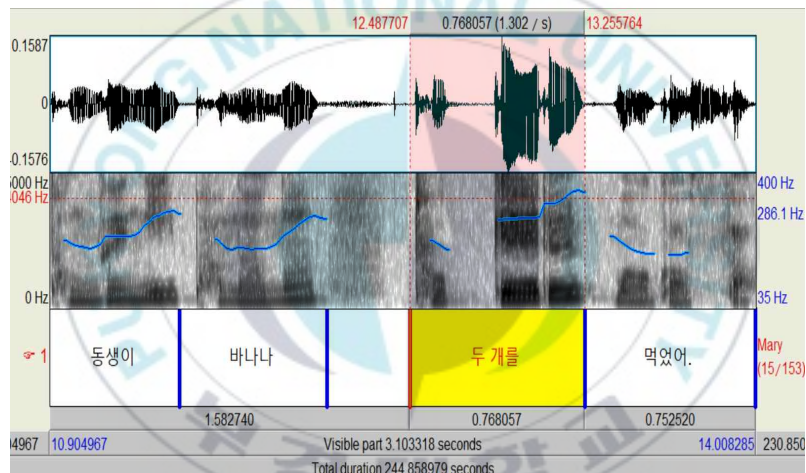
또한 대화문 1~4와 6~9를 대조하면 목적어 초점 부분은 ‘을/를’이 있는 문장과 ‘을/를’이 없는 문장의 음운구 해지 현상에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을/를’이 있는 1~4 문장에서 목적어 초점 부분 음운구 해지 현상을 나타나지 않으면 6~7 문장도 이런 현상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운구 해지 현상으로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을 실현 양상만 보면, 중국인

피험자가 이중목적어 구문은 어느 목적어에서 초점을 두는지 곤란하다고 하고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음운구 해지는 ‘을/를’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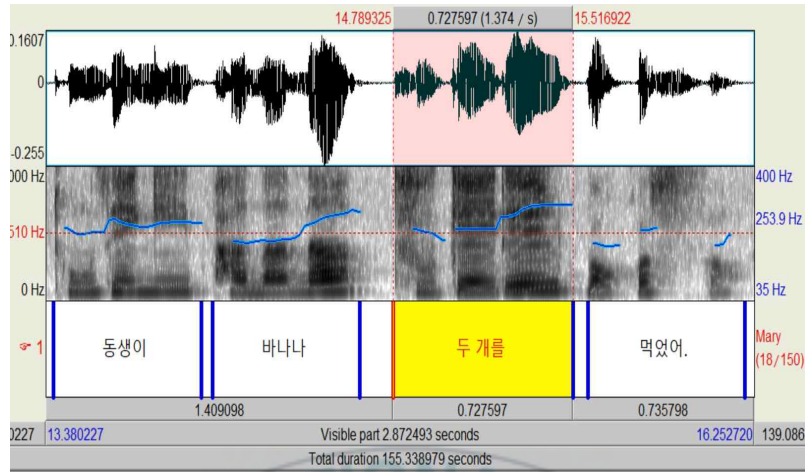


4.3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의 길이 분석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부분은 목적어 두 개 중 하나이다. 앞에서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 부분의 음높이와 음운구 해지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부분의 길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할 내용은 초점 부분의 길이 시간뿐만 아니라, 초점 부분의 길이가 증가하는가도 관찰하고자 한다. 먼저 대화문 ‘1’을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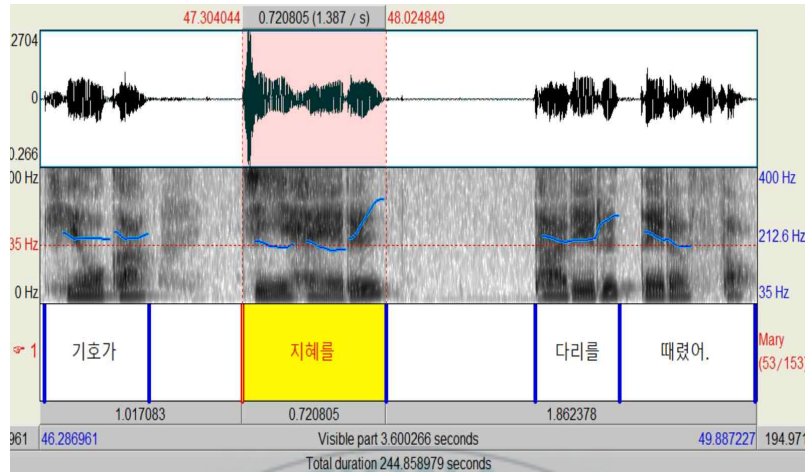


〈그림 12〉 중국인 피험자(CF8) 1b'의 초점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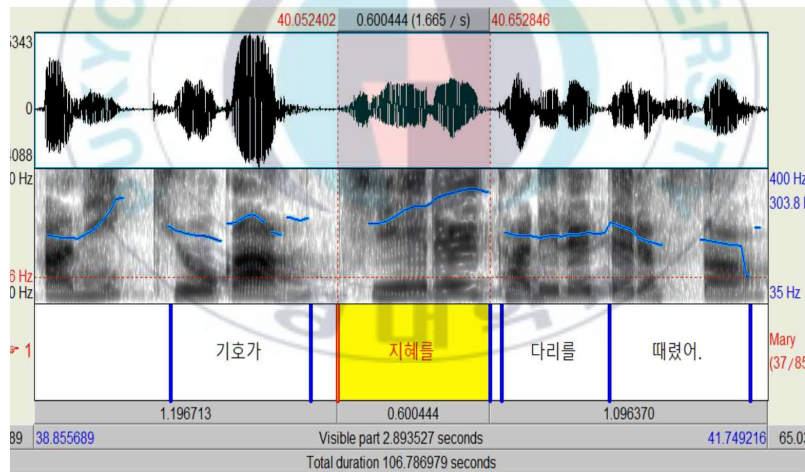


〈그림 13〉 한국인 피험자(KF1) 1b'의 초점 길이

〈그림 12~13〉에서 중국인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의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 부분의 길이를 볼 수 있다.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는 초점이 목적어 '두 개를'에 오고 '두 개를' 부분의 길이는 74.1ms인데 앞에 목적어 '바나나'의 길이는 64.4ms이다. 초점 부분의 길이가 문장 중에 제일 긴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선행음운구보다 길게 보인다. 한국인 피험자도 초점이 '두 개를'에서 오고 길이는 72.7ms이며 앞에 목적어 59.8ms보다 길고 길이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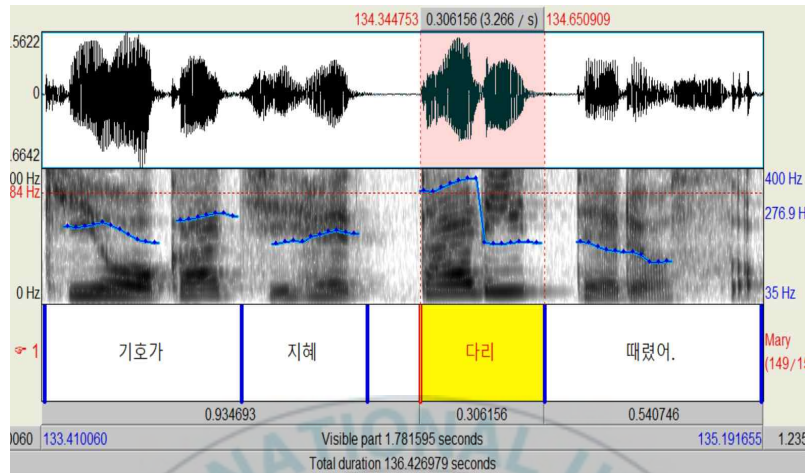


〈그림 14〉 중국인 피험자(CF6) 4b의 초점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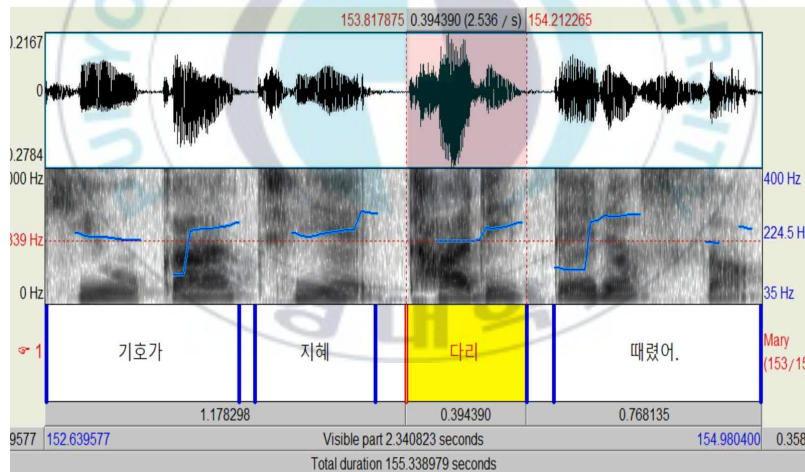


〈그림 15〉 한국인 피험자(KF2) 4b의 초점 길이

〈그림 14~15〉는 앞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의 초점 부분 길이이다. 중국인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는 모두 목적어 ‘지혜를’에서 초점이 나타났으며, 길이도 문장에서 제일 길었을 뿐만 아니라 문장 앞의 ‘기호가’ 선행음운구의 길이보다 증가하였다.



〈그림 16〉 중국인 피험자(CF6) 9b'의 초점 길이



〈그림 17〉 한국인 피험자(KF2) 9b'의 초점 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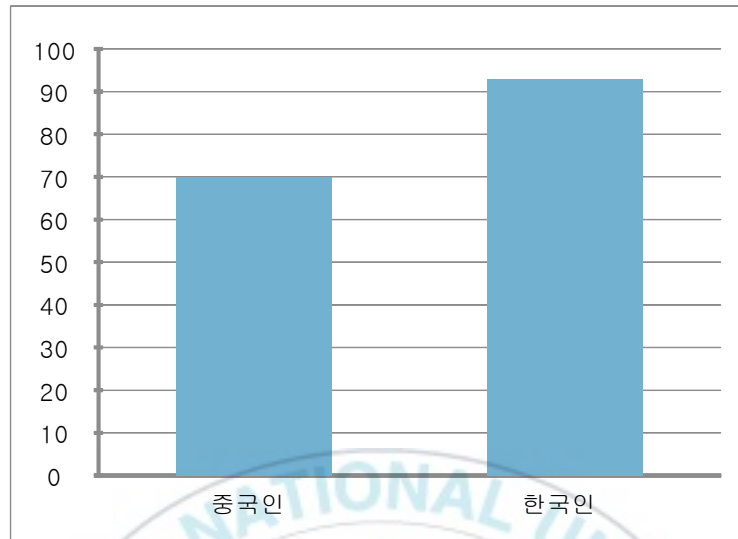
〈그림 12~15〉는 두 집단 피험자의 초점부분에서 길이가 앞에 선행음운구보다 증가하고 길이도 문장에서 제일 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림16~17〉은 목적어 '다리'가 초점이지만 길이가 앞에 선행음운구보다 길지 않고 문장에서 제일 긴 것도 아니었다. 〈그림 16〉 초점 부분의 길이

는 30.6ms로 나타났으며 <그림 17>은 39.4ms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 피험자와 중국인 피험자는 해당 초점 부분에서 길이가 앞보다 증가하지 않는 것과 지속 시간은 제일 긴 것 아닌 것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표 16〉 두 집단 초점구의 평균길이(ms)

	한국인 피험자	중국인 피험자	차이
1	70.35	58.26	-12.09
	67.55	62.69	-4.86
2	90.07	81.49	-8.58
	88.25	87.63	-0.62
3	107.05	97.22	-9.83
	102.77	97.85	-4.92
4	78.07	78.73	+0.66
	58.45	60.35	+1.9
5	92.32	85.93	-6.39
	66.72	63.88	-2.84
6	62.37	56.92	-5.45
	52.57	46.09	-6.48
7	71.27	66.44	-4.83
	69.52	62.81	-6.71
8	110.63	89.81	-20.82
	78.27	68.36	-9.91
9	54.47	49.35	-5.12
	42.92	43.90	+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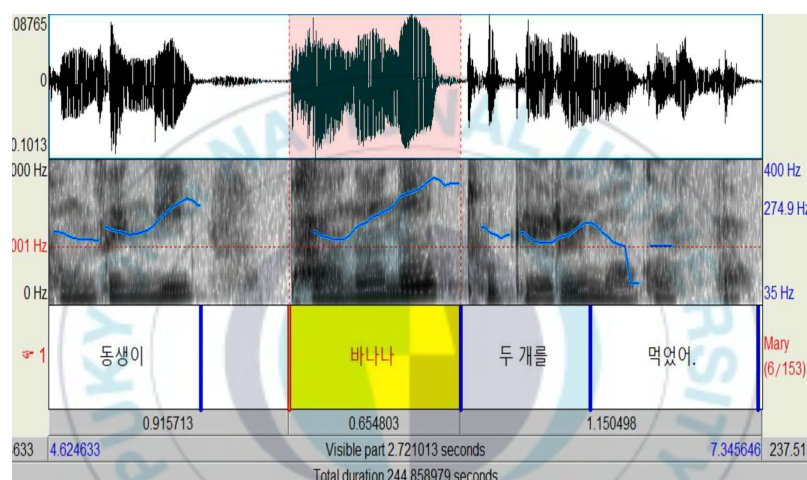
〈그림 18〉 두 집단 초점구 길이 증가의 발생률

〈그림 18〉을 보면, 초점 단어에서 길이가 긴 것과 앞에 선행음운구보다 길이 증가하는 비율이다. 한국인의 발화 중에 전부 문장의 초점 길이 증가하는 비율은 93%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중국인 경우는 70%만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 중 초점 부분에서의 발화 속도가 빠르고 길이의 지속시간 한국인보다 적게 보인다. 두 집단이 23%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초점의 길이 부분을 더 신경 써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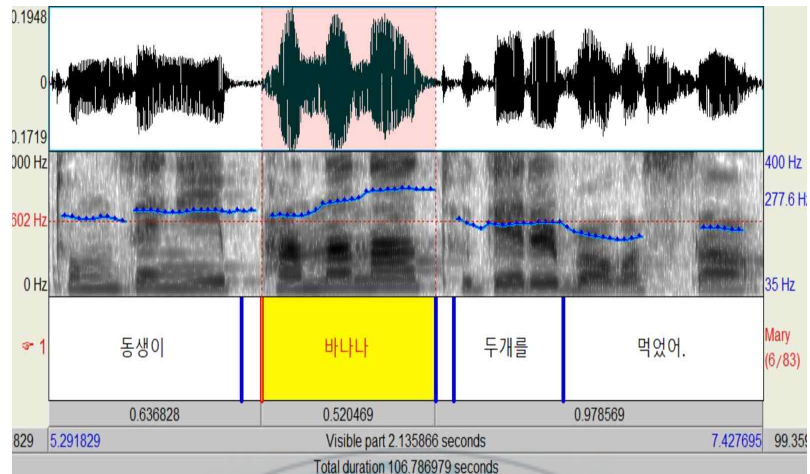
〈표 16〉은 한국이 모국어 화자와 중국인 피험자가 초점구의 평균길이이다. 〈표 16〉에서 ‘-’는 중국인 피험자의 평균길이가 한국인 피험자보다 짧은 것이고 반면에 ‘+’는 중국인 피험자가 한국인 피험자보다 긴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중국인 피험자는 모든 대화문 중에서 한국인 피험자보다 긴 것은 세 번 나타나고 평균길이가 비슷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4 이중목적어 구문 초점 억양의 실현 양상

중국인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의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부분의 경계성 조 실현 양상을 대조하여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4장에서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구 단어의 억양 양식을 제시하였다. 본장에서는 중국인 피험자의 초점구 단어의 억양을 분석하겠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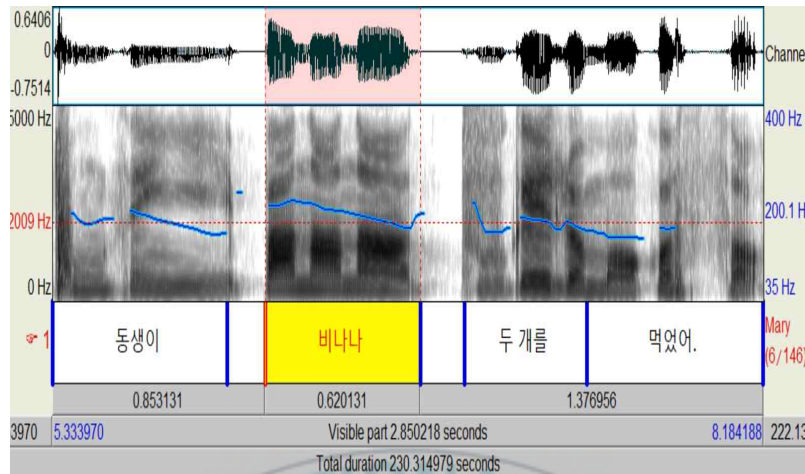


〈그림 19〉 중국인 학습자(CF2)의 ‘바나나’의 억양



〈그림 20〉 한국인 학습자(KF2)의 ‘바나나’의 억양

〈그림 19~20〉은 중국인 피험자와 한국인 피험자가 대화문 1b의 ‘바나나’의 초점구 억양이다. 두 피험자 모두 앞에 2장에서 제시된 것과 같고 L-H-H로 실현되었다. 〈그림 21〉을 살펴보면 같은 목적어 경우 ‘바나나’지만 억양구의 경계성조는 H-L로 실현되고 앞에 제시된 정상적인 경계성조 억양과 다르다.



〈그림 21〉 중국인 학습자(CF5)의 ‘바나나’의 억양

다음은 중국인 학습자의 목적어의 억양을 앞에 제시된 억양 패턴과 함께 실현된 비율이다. 〈표 17〉은 모든 목적어의 억양 양상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국인 피험자는 모두 100%이기 때문에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인 피험자의 경우 목적어 ‘한 그릇’은 100%로 가장 높게 실현되고, 목적어 ‘두 개’, ‘아이스크림’과 ‘다리’는 90%로 나타났다. 그리고 목적어 ‘바나나’와 ‘녹차 맛’은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7〉 중국인 학습자 목적어 단어 억양 실현율

경계성조	바나나 (LHH)	두 개 (L)	비빔밥 (LLH)	한 그릇 (HL)	아이스크림 (LHLH)
실현율	30%	90%	50%	100%	90%
경계성조	녹차 맛 (LH)	지혜 (LH)	다리 (L)	선물 (HL)	
실현율	30%	60%	90%	70%	

목적어 ‘바나나’와 ‘녹차 맛’의 억양은 대다수 H-L-L와 H-L로 실현되었

으며, 목적어 ‘비빔밥’의 경우는 L-L-H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H-L-H로 실현되었다. 그 다음으로 목적어 ‘지혜’와 ‘선물’은 각각 60%, 7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억양은 H-L와 L-L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목적어 ‘두 개’, ‘아이스크림’, 그리고 ‘다리’는 90%로 나타났다. 중국인 피험자의 목적어의 억양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고급 학습자이지만 억양은 한국인 피험자보다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고의 연구 목적은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을 발화할 때 초점억양의 실현 양상은 한국어 모국어 화자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가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억양의 음성적 실현에 나타난 운율적인 양상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정의를 정의할 때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본고는 조사 ‘을/를’ 두 개가 있는 문장은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사영위(2015)에 따라 이중목적어 구문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한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을 편하게 분석하기 위해 이중목적어 구문의 유형은 ‘속격/목적격 교체 유형, 부사격/목적격 교체 유형, 무표격/목적격 교체 유형과 하다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실험용 대화문도 이 4가지 유형에 따라 작성하였다.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토픽 5급 이상을 받은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국어 화자가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은 이중목적어의 초점억양의 운율적인 실현 양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중목적어 구문의 최곳값 위치의 분석할 결과, 중국인 학습자는 이중목적어 구문을 발화할 때, 문장 내 F0 최고점이 초점 부분에 나타난 비율이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실현율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에서 학습기간과 거주기간 길어서 한국어 발음에 관한 경험이 높게 쌓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어의 경우도 한국어 초점처럼 실현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데, 비율이 적지만 F0 최곳값은 초점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인 학습자는 초점을 어느 목적어에 두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구 음운구 해지 현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경우는 초점 부분의 목적어는 새로운 악센트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고, 초점구 목적어 후에 경계를 해지하는 경향도 빈번히 발생했다. 반면에 중국인 학

습자는 한국어 능력이 고급인데 이중목적어 구문을 발화할 때 초점구 음운구 해지 현상을 발생하지만 비율이 한국인 모국어 화자보다 적게 나타났다. 셋째, 두 집단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부분 목적어 길이가 길고 앞의 선행음운구보다 길이가 증가하는 비율은 23%로 큰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초점구 평균길이는 중국인 피험자가 한국인 피험자보다 짧게 보여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대화를 발화할 때 중국어의 영향을 받은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구 억양의 실현 결과, 한국인의 경우 다 선행연구대로 실현돼서 100%에 가까운 정확률을 실현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의 실현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구 억양의 신출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았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했다. 첫째,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의 실현에 나타난 운율 특징에서 음높이가 한국인 모국어 화자와처럼 실현되지만 음길이, 억양 등 양상은 한국인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이 어느 목적어에서 주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지역의 중국인 학습자의 억양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이중목적어 구문의 표지사 '을/를'은 초점구 음운구 해지 상관없지만 F0 최곳값은 초점에서의 실현율과 초점구 길이 증가의 발생률을 통해서 '을/를'도 이중목적어 구문의 초점 표지사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의 실험 부분에서 한국인 피험자가 4명씩만 선정되고 중국인 피험자가 10명밖에 없어서 분석할 수 있는 실험문장이 부족하다는 것을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중목적어 구문의 개념은 간단하게 정의하는 한계점을 지닌다. 앞으로 더 많은 피험자를 선정하여 이중목적어 구문에 대한 더 세부적으로 연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권성미(2009), “초점의 음성적 실현에 나타난 영어 화자의 한국어 운율 체계 습득 양상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7
- 권성미(2010), “억양의 문법 표지성 습득에 대한 연구: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쓰임에 나타나는 억양 없음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75-185쪽.
- 권성미(2010),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 교육21-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3쪽
- 권성미(2016), “억양의 기능에 따른 한국어 억양 교육 내용 고찰”, 언어와 문화, 12(4), 1-27
- 권성미(2017), 「한국어 발음 교육론」, 한글파크.
-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 김기호(2000), “억양 음운론의 관점에서 본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 비교”,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 김미란(2000),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나타난 초점과 문미 억양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철(2005), 「국어 억양의 음운론」, 경진문화
- 김성아(2003), “한국어 화자의 영어 억양의 인지에 관한 연구: 담화 내의 초점을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15-3, 팬코리아영어교육학회, 161-176쪽
- 김수미(2002),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억양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애 외(2008), “한국어 억양 교육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 교재 개발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 1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31쪽.
- 박철우(1996), “국어의 문장 화제: 이중 주어 구문과 관련하여”, 언어연구, 제14권,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35-50.

-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역락
-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제73권, 국어학회, 269-307.
- 박철우(2017),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정보단위 확정 문제”,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제6집, 44-63.
-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원
- 신노 토모코(2008),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억양 교육 방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14),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 오미라·이해영(199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억양 교육”, 한국어 교육5,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9-125쪽.
- 오미라(2008), “운율과 정보구조: 한국어 초점과 주제의 음성적 실현”, 한국음성학회, 음성과학, 2008, 6, 7-19
- 오충연(2006), 「상과 통사구조」, 태학사
- 왕영준(2015), “부산 거주 중국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억양 실현 양상 연구: 의문문의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74-75쪽
- 왕효혜(2015), “조사 ‘를’ 중출 구문과 중국어 이중목적어 구문의 대조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학위논문
- 윤기덕(2005), “중국어 초점 억양의 음성학적 실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일송(1992), “끊김 앞에서 보이는 서울말의 억양 특징”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41-62
- 이병운(2004), “표준어 억양 교육 연구” 우리말학회 133-152쪽
- 이상규(1980), “을/를’의 범주와 기능”, 문학과 언어, 제1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 이하나(2018), “정보 구조와 운율 구조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초점과 화제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어학연구 10-2호, 서울대 어학연구

- 이현복(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제1호, 한국언어학회, 131-143
-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 체계”, 언어학 제13권, 한국어어언학회
- 이호영(1993), “서울 방언과 경상도 방언의 운율 유형론”, 언어학 15
- 이호영(1996), 「국어 음성학」, 태학사
- 임홍빈(2007),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명수(2002), “한국어 억양의 기본 유형과 교육 방안”, 고려대학교
- 하세가와 유키코(2006), “발음 교육 방법론의 새로운 방향 모색-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6차 국제학술대회.
- 허용·김선정(2006), 「(외국어로서의)한국어 발음교육론」, 박이정.
- Bonlinger, Dwight(1958), A theory of pitch accent in English. Word 14: 109-49.
- Chun, DM(2002), “Discourse intonation in L2: from theory and research to practice”, Amsterdam: J. Benjamins.
- Halliday, MAK.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The Hague: Mouton.
- Jackendoff, Ray(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 D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un-Ah(2000), “K-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0”, 음성과학 제7권 1호, 한국음성과학회.
- Larson, R. K(1998),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Vol.19.No.3. pp335-391
- Lee.H.Y.(1990), “The Structure of Korean Prosody . Seoul : Hanshin Publishing Co”.

Lin, Yen-Hwei(2007), The Sounds of Chin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金瑛(2014), “현대 중국어 이중목적어구문의 어법특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史德明(2017), “論現代漢語中焦點与信息、話題及重音之間的關係”, 現代語文:下旬.語言研究, 2017:64

徐烈炯·潘海華(2005), “點結構和意義的研究”,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徐烈炯·徐丹青(1998), “焦點與背景、話題及漢語連字句”. 中國語文

王祥雨(2015), “중국어 표준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의문문 억양 교육 연구- 실험음성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록 1

서울 지역 모국어 피험자 정보

번호	나이	출신지	거주지
KF1	25	서울	서울
KF2	26	서울	서울
KF3	25	천안	서울
KF4	31	서울	서울

부록 2

서울 지역 중국인 피험자 정보

번호	나이	출신지	topik등급	체류 시간
CF1	26	서울	5급	3년
CF2	26	서울	6급	5년
CF3	26	서울	6급	3년
CF4	26	천안	6급	3년
CF5	25	서울	5급	2년
CF6	25	서울	6급	2년
CF7	25	서울	5급	2년
CF8	25	천안	5급	2년
CF9	24	서울	6급	2년
CF10	24	천안	5급	2년